



2010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지원 방안

A Study on the Support Plans for the Educative Activities  
of Out-of School Youth

이혜숙

연구진

연구책임 이혜숙 •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원 서은정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71,769명이며(한국교육개발원, 2010), 서울시의 경우 약 1.2%인 16,225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학업중단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큼.
-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됨.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이 미래의 시민으로 살아갈 충분한 자원을 학교 밖에서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 비행과 일탈의 길로 들어설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9년 중·고등학교 전문상담인턴교사를 배치하는 ‘학교종합안전망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학업중단 청소년이 처한 큰 문제는 바로 대안적인 교육기회나 직업훈련 기회 등의 대안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떻게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고 이후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 연구의 범위

- 이 연구는 현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인가형 대안학교 재학생 및 이민, 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다루지 않음.

### 2) 연구의 내용

- 학업중단의 이유와 원인
-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태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실태와 요구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문헌 및 국내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조사
- 면담조사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자들과 면담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및 요구, 지원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음.
-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면담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반영함.

## II.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1.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1)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초·중학교 학업중단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전문계고 학업중단자수는 줄어드는 반면, 일반계고 학업중단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표 1〉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5,103(1.24)	5,132(1.16)	3,718(1.52)	
중학교	5,563(0.65)	5,324(0.66)	4,048(0.85)	
고등학교	일반계	3,416(0.87)	3,385(0.90)	3,606(0.84)
	전문계	2,641(0.24)	2,414(0.25)	2,009(0.29)
	소계	11,414(0.59)	5,799(0.63)	5,615(0.64)
전체	16,723(0.81)	16,255(0.81)	13,381(0.95)	

출처 : 서울시교육청(2008~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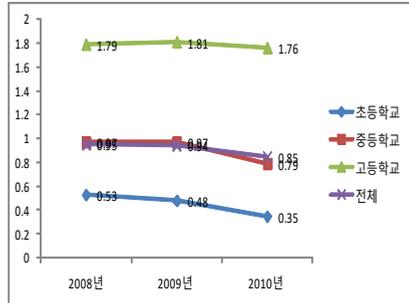
#### 2)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추이

-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2008년 0.81%에서 2010년 0.95%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학업중단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수로 볼 때,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표 2〉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0.53	0.48	0.35	
중학교	0.97	0.97	0.79	
고 등 학 교	일반계	1.15	1.14	1.16
	전문계	3.54	3.75	3.67
	소계	1.79	1.81	1.76
전체	0.95	0.94	0.85	



〈그림 1〉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출처 : 서울시 교육청(2008~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 3) 서울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사유별)

-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부적응’ 및 ‘품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수는 2008년 잠시 줄었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수는 2007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3〉 서울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사유별)

(단위 : 명)

연도	학교급	유예 및 면제자						재입학 및 편입	사망	유학 및 이민	유급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소계				
2010	일반계	340	738	27	1,293	1,208	3,606	2,510	48	1,646	19
	전문계	51	518	55	957	428	2,009	72	4	38	5
2009	일반계	335	791	21	1,181	1,057	3,385	2,202	48	2,247	17
	전문계	49	679	54	1,210	422	2,414	100	6	83	2
2008	일반계	360	906	24	986	1,140	3,416	1,867	32	2,541	13
	전문계	60	781	90	1,283	427	2,641	99	18	68	2
2007	일반계	293	681	23	735	891	2,623	1,952	32	2,928	11
	전문계	65	752	68	1,321	383	2,589	84	13	76	7
2006	일반계	244	830	22	443	628	2,167	2,343	41	2,517	1
	전문계	46	701	58	1,323	287	2,415	-	13	60	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6-2010), 교육통계연보

#### 4) 서울시 생활권별 학업중단 현황

##### ○ 생활권별 학업중단을 추이

-도봉구는 학업중단율이 0.75%에서 1.4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대문구, 구로구, 강북구 역시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표 4〉 서울시 자치구별 학업중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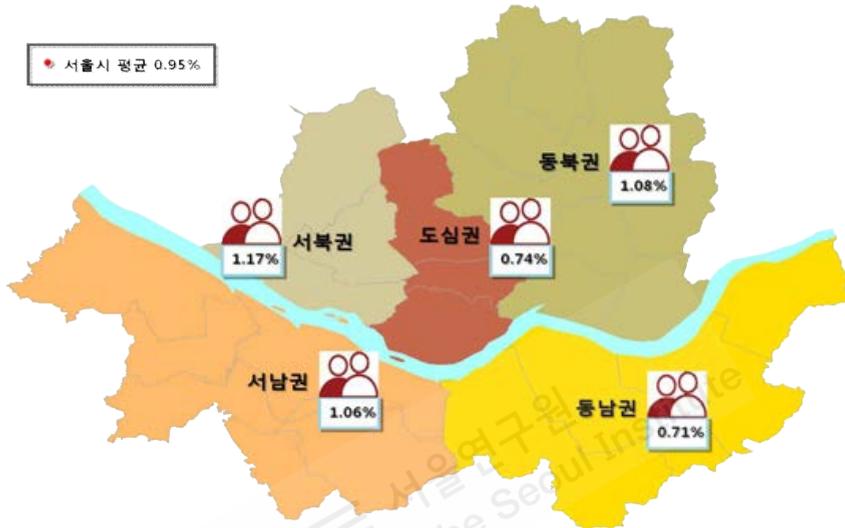
(단위: 명, %)

자치구별		2008년	2009년	2010년
도심권	종로구	416(0.71)	358(0.81)	275(1.02)
	중구	465(0.53)	409(0.58)	358(0.62)
	용산구	448(0.62)	418(0.66)	401(0.65)
동북권	성동구	452(0.80)	363(0.95)	269(1.24)
	광진구	435(1.20)	566(0.87)	402(1.16)
	동대문구	457(1.01)	525(0.84)	441(0.94)
	중랑구	329(1.59)	416(1.20)	356(1.32)
	성북구	789(0.74)	792(0.73)	717(0.78)
	강북구	295(1.24)	264(1.34)	249(1.37)
	도봉구	710(0.75)	422(1.20)	366(1.43)
	노원구	880(1.23)	1,251(0.84)	991(1.02)
	서북권	은평구	574(1.13)	598(1.06)
서대문구		429(0.94)	397(0.96)	289(1.25)
마포구		707(0.59)	485(0.83)	419(0.92)
서남권	양천구	863(0.95)	1,048(0.76)	785(0.99)
	강서구	1,248(0.64)	997(0.79)	992(0.76)
	구로구	617(0.84)	441(1.14)	390(1.24)
	금천구	757(0.44)	292(1.07)	265(1.09)
	영등포구	1,160(0.39)	511(0.86)	347(1.20)
	동작구	400(1.16)	408(1.09)	298(1.43)
	관악구	515(1.12)	523(1.06)	376(1.38)
동남권	서초구	769(0.67)	1,040(0.49)	794(0.66)
	강남구	1,462(0.53)	1,940(0.39)	1,576(0.48)
	송파구	963(0.94)	1,098(0.86)	949(0.96)
	강동구	582(1.09)	693(0.89)	608(0.99)
전체		16,723(0.81)	16,255(0.81)	13,381(0.95)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www.schoolinfo.go.kr](http://www.schoolinfo.go.kr)

○서울시 지역별 학업중단율은 차이가 있음.

-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의 학업중단율은 1.0%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인 반면, 도심권과 동남권의 학업중단율은 각각 0.74%, 0.71%로 낮은 편임.



참고 : 서울시교육청(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그림 2〉 서울시 생활권별 학업중단율(2010)

## 2. 서울시 학업중단 현황 분석의 시사점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큼.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에 학업중단 시기를 반영하여 이들의 미래 및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훨씬 높음.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및 지원방안 마련 시 계층에 따른 지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함.

○서울시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생활권별 편차가 있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시 지역별 학업중단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Ⅲ.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면담조사 결과)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제

##### 1)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재미없는 공부,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교실, 친구들의 왕따와 미숙한 교사로 인한 흥미상실, 일탈 등으로 학교에 대하여 흥미를 상실하였음.

##### 2) 학업중단 후의 생활

○거주

-셋터돌이 생활을 하거나, 가출 후 주로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노숙을 하기도 함.

○아르바이트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지속성은 3-4개월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함.

##### 3) 학업중단 후 배움

○검정고시 준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선 고등학교 졸업이란 '학력'이 필요함을 인식함.

-검정고시는 자신감 회복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함.

○대안학교 다니기 : 공부의 의미 발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킴.

#### 4) 학업중단 이후의 명암

○학업중단 이후의 어려움

-공핍 :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주거와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단절 : 중단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친구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도 단절됨. 가족관계 단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짐.

-무시 : 학업중단을 비행과 일탈 때문으로 보는 뼈뺀 시선에 상처를 받음.

-일탈 : 불규칙한 일상생활로 유흥이나 비행의 유혹에 빠지기도 함.

○학업중단 이후 얻은 것

-탈피 : 의미 없는 학교생활과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음.

-탈출 : 학업중단은 왕따 및 폭력 가정에서의 탈출 계기가 됨.

-꿈의 발견 :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됨.

## 2. 기관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

### 1) 기관에 오는 학업중단 청소년

○단기쉼터의 경우 최대 3개월, 중·장기쉼터는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함.

○현재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입소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자진입소나 보호관찰명령, 보호기관과 타 쉼터 연계 등을 통한 입소

○쉼터 입소 청소년의 특징

-방임, 가출, 학교부적응 및 비행 등의 경력 있음.

- 컴퓨터 입소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 정서적 안정, 비행행동의 감소, 일상생활기술의 습득, 자신감 향상 및 관계 개선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함.

## 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어려움

- 기관의 지원
  - 컴퓨터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맞춤 지원(사례관리), 학습 및 진로지도, 자립준비, 상담,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기관운영의 어려움
  -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 기관 홍보의 어려움, 타기관 혹은 프로그램연계의 어려움, 학업중단 관련 정보 습득 및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3.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 및 개선사항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사항

- 학교중단 시점부터 청소년 보호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길 원함.
- 진로 등 전반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벅차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하고 있음.
- 진로 또는 직업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등이 확대되길 바람.
- 대안학교와 같은 형태이거나 학습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같이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을 원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 수강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함.

## 2)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선사항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현재 컴퓨터의 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 수 확충이 필요함.
- 타 기관과 연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해주는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함.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담당자들의 치밀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시사점

- 아직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함.
  -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일자리를 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력취득 및 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취업지원에 앞서 학습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학력취득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학업중단 청소년과 기관 담당자가 말하는 변화 정도가 일치함.
  -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활동의 성과로,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함.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 이전, 중단시점, 중단 이후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요청됨.

## IV.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

### 1.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적기반 구축

- ‘(가칭)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로 활용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서울시민의 구성원이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 기회 제공
  - ‘(가칭)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기반 구축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전담부서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 전담조직 구성
  - 청소년 사업과 연계가 쉬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에 전담팀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요구조사를 기초로 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마스터플랜 마련
  - 학습프로그램, 전일제 대안학교, 자립, 취업 및 직업훈련 계획 등을 포함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교육청과 네트워크 구축
  - 국가단위 네트워크와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네트워크는 필수적임.
  - 이때, 매뉴얼 개발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소생활권 단위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습, 주거, 진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대안적 학습공간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현재 징검다리 프로젝트만으로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할 수 없어 징검다리사업의 적극적 확대 및 학습공간의 충분한 확충
-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를 고려할 때 학습프로그램의 수는 미흡함.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줄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 제공
  - 성인기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 4. 일자리 및 취업 등 자립지원

-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지원 코너’ 마련
- 궁극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직업학교를 활용한 직업교육과 연계해 학업중단 청소년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과정 개설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한 취업 기회 제공

#### 5.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

-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이후 시기의 심리적 불안 해소, 중단 후 삶에 대한 준비 제공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일제 전문상담가 배치 및 상담 제공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상담 병행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내용 .....	6
제3절 연구방법 .....	7
1. 문헌연구 .....	7
2. 면담조사 .....	8
3. 자문회의 .....	8
제2장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및 관련 법률 .....	13
제1절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	13
1. 학업중단의 개념 .....	13
2. 학업중단의 원인 .....	16
3.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	22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법률 .....	24
1. 청소년보호법 .....	24
2. 청소년기본법 .....	25
3. 청소년복지법 .....	25
4. 청소년활동진흥법 .....	26
5. 교육기본법 .....	26
6.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특별법 .....	26

7. 위기청소년지원관련법 .....	27
<b>제3장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정책 .....</b>	<b>31</b>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31
1. 학업중단자수 .....	31
2. 학업중단을 추이 .....	33
3.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	36
4. 서울시 지역별 학업중단 현황 .....	37
5. 시사점 .....	41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사업 .....	42
1. Wee 프로젝트 .....	42
2.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44
3. '해밀'센터 .....	46
4. '두드림(Do Dream) 존' : 토탈 자립준비 프로젝트 .....	47
제3절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과 사업 .....	48
1. 서울시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	48
2.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	50
제4절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58
1. 영국 .....	58
2. 미국 .....	60
3. 시사점 .....	67
<b>제4장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요구 분석 .....</b>	<b>71</b>
제1절 면담조사 개요 .....	71

1. 대상자 선정과 면담 실시 .....	71
2. 조사 내용 .....	74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제 .....	75
1.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	75
2. 학업중단 후의 생활 .....	81
3. 학업중단 후 배움 .....	88
4. 학업중단 이후의 명암 .....	96
제3절 기관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 .....	102
1. 기관에 오는 학업중단 청소년 .....	102
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어려움 .....	112
제4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 및 개선사항 .....	123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사항 .....	123
2. 담당자 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선사항 .....	129
제5절 시사점 .....	135
<b>제5장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방안 .....</b>	<b>139</b>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적기반 구축 .....	139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139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140
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전담 부서 마련 .....	141
4.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	141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142
1. 서울시교육청과 네트워크 구축 .....	142
2.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143

제3절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145
1. 대안적 학습공간 마련 .....	145
2.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146
3.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 제공 .....	146
제4절 일자리 및 취업 등 자립지원 .....	147
제5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	148
참고문헌 .....	151
영문요약 .....	159



# 표 목 차

---

〈표 3-1〉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	32
〈표 3-2〉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	32
〈표 3-3〉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율 .....	33
〈표 3-4〉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	35
〈표 3-5〉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사유별) .....	36
〈표 3-6〉 서울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사유별) .....	37
〈표 3-7〉 서울시 자치구별 학업중단율 .....	38
〈표 3-8〉 2010년 서울시 생활권별 학업중단율(학교급) .....	40
〈표 3-9〉 Wee 프로젝트 내용 .....	42
〈표 3-10〉 CYS-Net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현황 .....	45
〈표 3-11〉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	45
〈표 3-12〉 2011년 서울시 청소년 정책 시행내용 .....	48
〈표 3-13〉 201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 .....	50
〈표 3-14〉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 .....	50
〈표 3-15〉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업 개요 .....	51
〈표 3-16〉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	52
〈표 3-17〉 서울시 네트워크학교 및 준네트워크 학교 .....	52
〈표 3-18〉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	55
〈표 3-19〉 YO! center 프로그램 .....	66
〈표 4-1〉 면담 대상자(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	73

# 그림 목차

---

〈그림 2-1〉 학업중단 관련 요인 .....	21
〈그림 2-2〉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 .....	22
〈그림 2-3〉 학업중단의 이유와 흐름도 .....	24
〈그림 3-1〉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을 .....	33
〈그림 3-2〉 전국 중·고 학업중단을 변화 추이 .....	34
〈그림 3-3〉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을 .....	35
〈그림 3-4〉 생활권별 학업중단을 .....	39
〈그림 3-5〉 Wee 프로젝트 네트워크 진행 과정 .....	43
〈그림 3-6〉 해밀센터 프로그램 제공과정 .....	46
〈그림 3-7〉 두드림 존 프로그램 진행 과정 .....	47
〈그림 3-8〉 징검다리 학습과정 흐름도 .....	56
〈그림 3-9〉 징검다리 학습과정의 성격 .....	56
〈그림 5-1〉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	144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방법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에 전국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2%인 71,769명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서울시의 경우 전체 재학생의 약 1.2%인 16,255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들 중 68.0%는 학업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기, 2009 ; 진성미, 2010). 만약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여성가족부(2010)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이미 위기 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 위험군으로 나누어 추정해 볼 때, 고위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 중 39%가 위의 학업중단 발현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중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학교를 그

만두고 나오는 청소년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그 비율은 평균 13%인 OECD 국가들에 비해선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를 상회한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이 미래의 시민으로 살아갈 충분한 자원을 학교 밖에서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행과 일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개연성도 높다. 특히, ‘학벌주의 팽배’와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윤미원, 2006)에서, 이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업중단자라 하면 가정형편상, 혹은 개인의 문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을 단순한 교육의 실패나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9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교종합안전망시스템(Wee Project)’<sup>1)</sup>을 구축하여, 2011년까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25개교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폭 확대’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업중단 예방정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종합안전망시스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

만약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올 때 적절한 사회, 특히 서울시의 지원이 있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

1) ‘Wee project’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부적응학생이나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종합안전망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할 수 있는 일은 대안학교 입학 외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징검다리 사업 등의 제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곧바로 대안적인 교육기회나 직업훈련 기회 등의 대안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교육지원 대부분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업을 중단할 시 지속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이다(김성식, 2009).

따라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정책(학교상담 운영체계 혁신·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 지도 강화 등)과 정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복귀 정책 이외에 정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없는, 즉, 기존의 정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가 길을 만들어주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지원 정책(제도화된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등)이 요구된다(이경상·박창남, 2006).

이와 같은 이유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찾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떻게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고 이후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서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학업중단 청소년을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좀 더 진전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업중단을 문제(problem)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선택(option)으로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도 달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여각, 2002).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이들이 주로 학업중단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에서만 다루었다. 또한 인기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역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사유로 볼 때, 이민 혹은 유학이 아닌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 2. 연구의 내용

이상의 연구 범위하에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업중단의 이유와 원인
-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현황

-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추이
-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자치구별(권역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 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
  - 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지원 내용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실태와 요구
  -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모습
  - 학업중단 청소년(또한 관련 담당자)의 요구와 기대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

### 제3절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중단 관련 문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의 개념, 학업중단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이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해외(도시)의 학업중단 정책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활동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면담조사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학업중단의 사유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을 구분하여 다른 경로를 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크게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학습을 지속하는 청소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했거나 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 청소년쉼터나 센터에 있는 청소년,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청소년 등으로 나눈 후, 집단별로 1~2명에 대한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를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선정하고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위에 제시된 유형에 가까운 기관의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청소년쉼터,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의뢰하여 추천해 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만나 면담을 실시한 후, 이들 청소년의 협조를 얻어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 3. 자문회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이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제2장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및 관련 법률



제1절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법률

## 제 2 장

#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및 관련 법률

## 제1절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 1. 학업중단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 부적응 관점에서 이해하였으며, 그 당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아정체감 및 학교 부적응,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말부터 이들에 대해 좀 더 가치 중립적 입장을 반영하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02년 5월 당시 교육부는 중도탈락생 대책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학업중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학업중단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나라마다 학업중단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고 학업중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학업중단에 대한 개념은 약간씩 상이하다. 특히, 국내의 학업중단 개념과 외국의 학업중단 개념에서 차

이가 보인다.

국내의 학업중단 개념은 대체로 사유가 어떠한 정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환(2002)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학업중단을 정의하였으며, 이경상·박창남(2006)은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을 학업중단으로 보았다(Good, 1973 ; Page and Thomas, 1977 ; 표갑수, 1993 ; 황창순, 1996).

한편, 류방란(2007)은 학교부적응을 학교 체제 안에서 학생 주체가 학교의 요구, 기대와 갈등, 부조화를 빚는 현상으로 보고 학교를 나간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교부적응이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외국 학자들은 학업중단을 좀 더 세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실제적인 학업중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윌리엄스(Williams, 1996)는 퇴학처분을 받아서 복학할 수 없는 학생, 유기정학으로 다시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학생, 등록을 했으나 특별한 일없이 출석 미달인 학생을 모두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취급하였다. 보스 외(Voss, Wendling & Elliott, 1966)는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이 타의에 의한 학업중단자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자의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학업능력부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구분하였다(최정자, 2007 ; 김선아, 2008 재인용).

또한 머로우(Morrow, 1986)는 학교에 등록은 했으나 졸업 전에 학교를 떠났거나 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대안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 프로그램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을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학생(Pushouts), 둘째, 학교와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은 비 제휴형 학생(the unaffiliate), 셋째, 학교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 교육적

사망자(educational mortalities), 넷째, 능력은 있으나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학교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서 중퇴하는 학생(capable dropouts). 다섯째,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중퇴자인 중지자(stopouts) 등이 그것이다. 반면, 로벨로(Rovello, 1965)는 학교에 실패한 학생들과 학교에 나오지만 학습에 대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구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규정하였다(김선아, 2008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학업중단의 개념은 제도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업을 쫓아가지 못해 실질적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학업중단과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도탈락(학생), 중퇴(자), 학교 중단자, 학교 밖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 용어(조혜정 1998 ; 이소영, 2000 ; 조영승 외, 2001 ; 이창호, 2002 ; 배영태·손승영 외, 2003 ; 금명자, 2004 ; 김선아, 2008 재인용)들이 그것이다. 이런 용어들은 학업중단이란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현재에도 사용된다. 이 중 몇 가지 용어를 학업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그 중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중도탈락은 ‘drop-out’을 번역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1996)는 중도탈락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현상’으로 보았다(이병환, 2002 재인용). 이와 같이 중도탈락은 귀책사유를 개인에게 돌려 사회적인 관심으로 환기하는 데 소극적인 반면, 학업중단은 그 책임과 원인을 개인에게 두기보다 사회 전반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일탈하였거나 일탈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이다. OECD(1995)는 위기 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지승희·양미진, 2006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위기로 회자되는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총기 사용 등과 같은 범주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은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학업중단이란 용어는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도 또 다른 배움터가 있고 학생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학습권 보장 정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이경상·박창남, 2006).<sup>2)</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으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교육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학업중단 이후의 대책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건강, 심리적인 문제 등의 개인적인 이유, 집안의 경제사정 악화나 불화 등의 가정적인 이유, 학교 부적응, 일탈 등의 학교 관련 이유,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 관련 이유 등으로 실로 다양하다(Bryk & Thum, 1989 ; Fine, 1991 ; Rumberger, 1995 ; Goldschmidt & Wang, 1999 ; 구자경 외, 2001 ; 김민, 2001 ; 서우석 외, 2001 ; 김혜영, 2002 ; 조아미, 2002 ; 박창남 외,

---

2) 최근에 김성기(2010)는 학업중단이란 용어보다는 '등교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교중단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것이다.

2003, 이경상·박창남, 2006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인 요인(가정환경, 경제적 빈곤, 개인의 심리와 가치, 부모의 태도, 부모와의 불화, 스트레스, 조기유학 및 장기간 외유 등)’, ‘학교-환경적인 요인(교사-친구와의 불화, 학교공부 미흡, 비행,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엄격한 교칙 등)’, ‘사회적 요인(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적응, 학교체제의 유연성 결여, 학교체제, 사회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개인적인 요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대체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태도, 심리적 불화 및 가정폭력 등이 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기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자존심이 낮고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외부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인과 유대감이 약한 성격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승 외, 2001 ; 이병환, 2002 재인용). 그런데 이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소원한 가족관계, 결혼가정, 가족의 무관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대 수준 등의 가정배경 요인과 낮은 자아존중감, 외적 통제성,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 등은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박영신·김의철(1999)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과 격려의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승희(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위기상황 및 일탈행동이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분류심사원(1997)에서 심사된 문제청소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훈육태도가 적절했다는 반응은 매우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방임, 익애, 일관성 결여, 엄격, 부모 불일치, 거부 등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진, 박성수 1991).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자료에 따르면 해가 거듭될수록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은 물론, 학업중단을 선택한 고등학생 10명 중 7~8명은 학교 부적응과 가정 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재단, 2009 재인용). 또한 박영신 외(2004)의 연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의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고등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친부모인 경우도 적고, 결손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대검찰청 2000, 분석결과와 동일). 이는 결손 가정의 자녀일수록 청소년기에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보여준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심 정도, 자녀 거부, 적대적 양육과 같은 자녀양육의 방식 및 태도, 자녀와의 갈등 등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 학교-환경적인 요인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환경과 학교의 풍토, 문화, 학교유형,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과 학교 내 인간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시기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승희(200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애착이 강해지고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옥일남, 1991 ; 이숙영, 1997 ; 이병환, 2002 재인용),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친구가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유성경·이소래, 1998),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김성연(200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반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모두 친구를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로 보았다. 특히 끼리끼리 친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탈 청소년의 경우 비행성이라는 요인을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으로

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영향력도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보는데, 여러 연구들(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 2000)에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 본인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증가로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2003).

이렇게 청소년시기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또래 혹은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거부당했다는 느낌,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의지 부족(개인의 욕구 부족), 성취에 대한 동기화 부족은 미약한 관계를 만들고,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비행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데서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은 학업중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 사회적 요인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학업중단이 가정의 구조적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심리적인 환경 또한 위기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밝혀왔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더 이상 학생 개개인과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되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기인하기보다 복잡한 사회적,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가 순전히 그들의 자발적인 뜻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제도 혹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탈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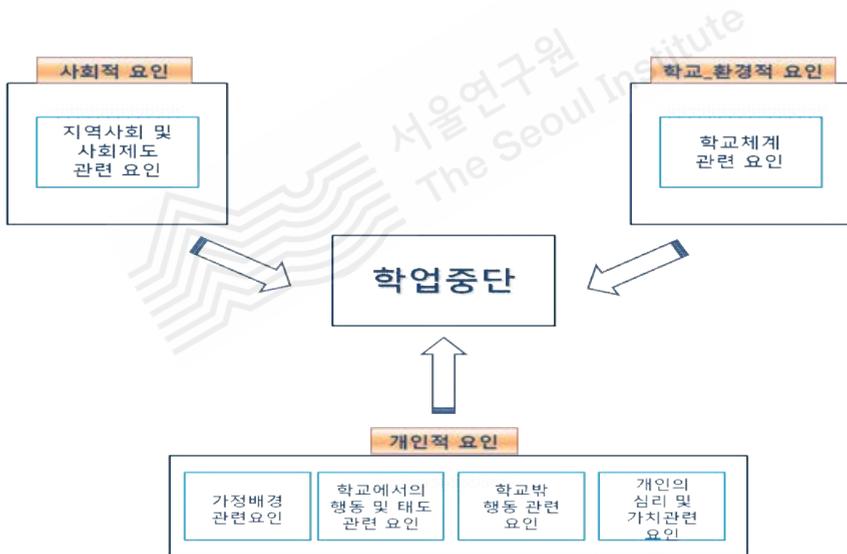
이 받고 있으며, 사회성 효능감은 높지만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은 낮고 학업에 대한 포부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영신·김의철·김영희, 2004 ; 지승희, 2006 재인용). 이러한 요인들을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적응현상(이병환, 2002)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류방란(2007)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사회적 맥락에서 재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부적응은 산업화 단계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것이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가족관계의 붕괴와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 전반적인 동기상의 위기라는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혜정, 1998 ; 이병환, 2002 재인용).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의 구분도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도덕적 위기와 아노미 현상은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한 요인(서우석, 2001)이 된다.

가정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을 중단하면서 이후에도 고용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얽혀 있는 문제이며 삼자의 역학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윤여각 외,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탈락생의 문제가 사회의 골칫거리이며, 인성적으로 잘못된 학생들의 개인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가 같이 치유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앞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학교, 대안학교, 정부 관계자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윤미원, 2006).

또한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급변하는 사회로 인한 학교체제의 유연성 결여를 들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요인임은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학교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체제의 대응이 부족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병환(2002)은 교육과정의 문제를 학업중단의 요인으로 지

적하였다.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사의 획일적인 수업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공부에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다. 박창남 외(2001) 역시 사회적 불평등, 계층구조화, 학벌주의, 전통적 가족형태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 등 교육 제도적 요인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 중 한 요인에 의해 학업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업중단은 여러 가지 변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으로 개인적, 학교 제도적,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운, 2004). 따라서 학업중단 문제는 청소년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학교, 가족,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 다양한 환경들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상호교류가 일어나는 공동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조영승 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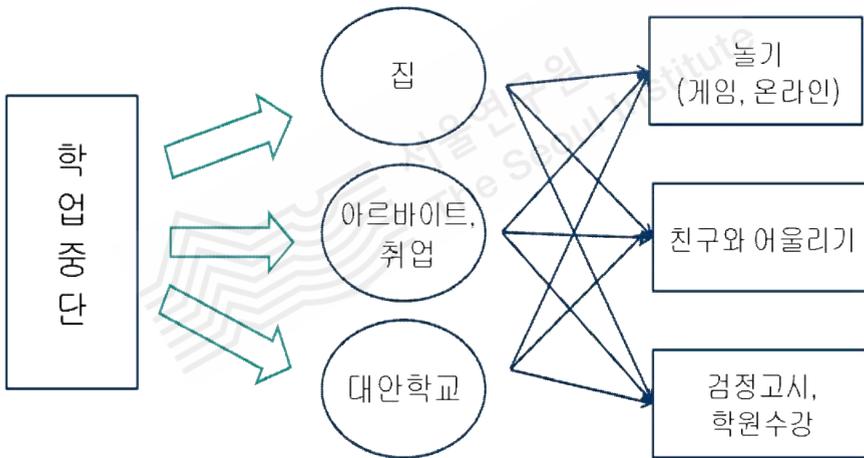


출처 : 유성경 외(1998)를 재구성

〈그림 2-1〉 학업중단 관련 요인

### 3.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은 다른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집에서 소일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대안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로를 밟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으며, 학업중단 이후 복교를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다. 이외에도 문제행동이나 일탈로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로는 다음의 그림 중 하나가 된다(<그림 2-2> 참고).



출처 : 진성미·정연순·이혜숙(2009), 학교 밖 청소년의 탈학교 이후 경로와 주요활동도

<그림 2-2>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한편, 윤여각(2002)은 학업중단의 이유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삶이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기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단 이유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정리

하였다.

첫째, 가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가정불만 때문에 가출이 반복되고,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가 싫어 가정에 머무를 수도 있고, 대안학교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공부를 포기한 경우 가출을 거듭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사한 취향의 청소년과 몰려다니며 비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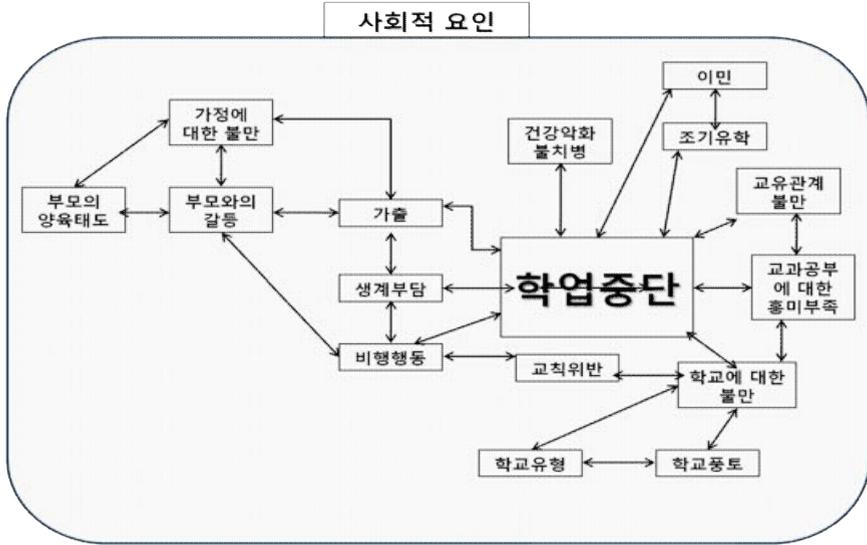
둘째, 생계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로 만약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후 단순노동직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저학력으로 이어지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나 단순 교과공부가 싫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도 있고,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다. 특히 대안학교와 유학을 갈 경우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넷째, 비행에 흥미를 느껴서 교칙위반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업을 중단한 경우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절도, 호객 행위꾼으로 고용되거나, 매춘부 등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다. 그 결과 선도보호시설 혹은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다.

다섯째,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집 혹은 병원,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된다. 건강이 호전되거나 의학의 발달로 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 경우에 학업중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후 호전되거나 치유되면 복학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여섯째, 장기간 외유 및 이민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기관에서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이후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에 복학이나 진학을 하게 된다.



출처 : 윤여각(2002), 중도탈락의 이유와 흐름도 재구성

〈그림 2-3〉 학업중단의 이유와 흐름도

##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법률

### 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7, 법률 제5297호).

##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12. 31, 법률 제4477호)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육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규정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정부의 책임사항들, 청소년육성정책 관련 협의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지도자 양성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 3.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2월에 시행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4호)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4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특별지원청소년 규정을 따로 두었는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 기초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4. 청소년활동진흥법(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3호)이다. 대개 청소년의 활동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은 미미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는 학교와의 협력(청소년기본법 제48조 관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 5. 교육기본법(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5437호).

전체적으로 청소년으로 표기된 법률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학업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 간접적으로 돕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더 많이 담고 있다.

#### 6.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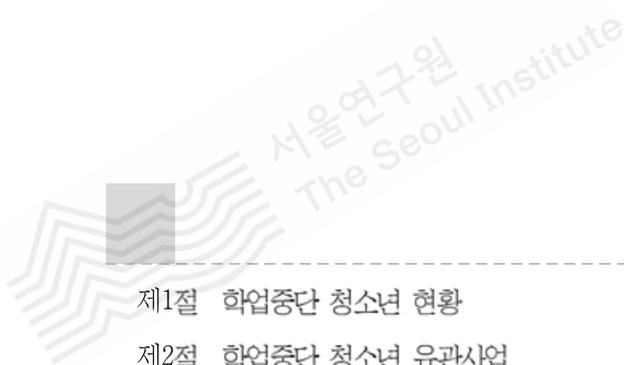
이 특별법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서울시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시 조례이다. 이는 서울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사항들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위원회의 역할 등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7. 위기청소년지원관련법(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연계하고 협력, 촉진시키기 위해 통합지원체계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09년 6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중 ‘CYS-Net’에 관한 규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 중 가장 근접한 규정(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장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정책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사업

제3절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과 사업

제4절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1. 학업중단자수

## 1) 전국 현황

교육과학기술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61,910명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sup>3)</sup> 전국적으로 학업중단자수는 2008년 73,494명에서 2009년 71,769명, 2010년 61,910명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010년 기준으로 11,634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15,736명이며, 역시 2008년 이후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34,540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2008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 많아지고 있다.

---

3) 2010년 통계이므로, 2009년에 학업을 중단한 수이다.

〈표 3-1〉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20,450(0.53)	17,644(0.48)	11,634(0.35)	
중학교	20,101(0.97)	19,675(0.97)	15,736(0.79)	
고등학교	일반계	15,477(1.15)	16,145(1.14)	17,419(1.16)
	전문계	17,466(3.54)	18,305(3.75)	17,121(3.67)
	소계	32,943(1.79)	34,450(1.81)	34,540(1.76)
전체	73,494(0.95)	71,769(0.94)	61,910(0.8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8~2010). ( )는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  
 '유학·이민·사망 등의 경우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유예자와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2) 서울시 현황

2010년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수는 13,331명으로 2009년의 16,255명보다 2,894명이 줄어 전국과 마찬가지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2010년 현재 3,718명으로 200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2010년 현재 4,048명으로 2009년보다 276명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2010년 현재 5,615명으로 2009년에 비해 불과 184명이 감소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줄어드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표 3-2〉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5,103(1.24)	5,132(1.16)	3,718(1.52)	
중학교	5,563(0.65)	5,324(0.66)	4,048(0.85)	
고등학교	일반계고	3,416(0.87)	3,385(0.90)	3,606(0.84)
	전문계고	2,641(0.24)	2,414(0.25)	2,009(0.29)
	소계	11,414(0.59)	5,799(0.63)	5,615(0.64)
전체	16,723(0.81)	16,255(0.81)	13,381(0.95)	

출처 : 서울교육통계연보(2008~2010). ( )는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  
 '유학·이민·사망 등을 제외한 수임.

## 2. 학업중단을 추이

### 1) 전국 추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에 0.35%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율도 2008년 0.97%에서 2010년 0.79%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일반계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모두 2008년보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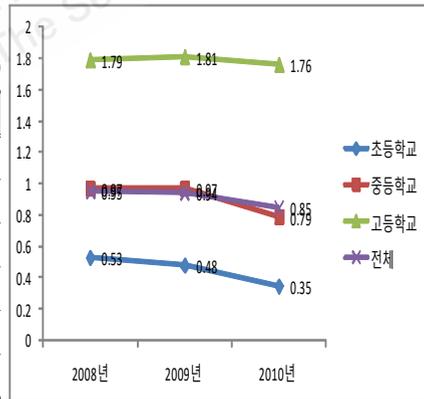
학업중단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매우 높으며 이런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3〉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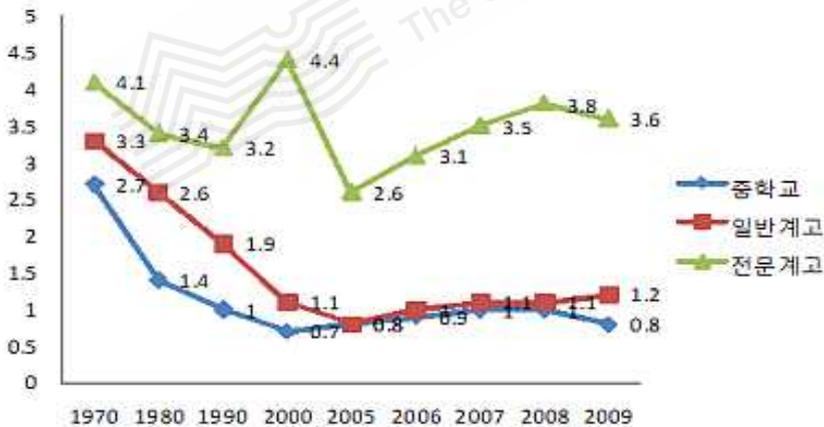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0.53	0.48	0.35	
중학교	0.97	0.97	0.79	
고 등 학 교	일반계	1.15	1.14	1.16
	전문계	3.54	3.75	3.67
	소계	1.79	1.81	1.76
전체	0.95	0.94	0.85	

출처 : 서울교육통계연보(2008~2010)



〈그림 3-1〉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율

한편, 전국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급격히 줄어든 양상을 볼 수 있다(<그림 3-2> 참고).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70년 3.3%에서 2009년 1.2%로 36%가량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에 4.4%로 1970년보다 0.3%가 높아졌으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잠시 낮아졌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사(2009)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대비 학업중단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을 관련 교육환경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설명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간추린 교육통계연보

<그림 3-2> 전국 중·고 학업중단율 변화 추이

## 2) 서울시 추이

서울시 초·중·고 전체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0.81%에서 2010년 0.9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중단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수로 볼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008년 1.24%에서 1.52%로,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이 2008년 0.65%에서 2010년 0.85%로 소폭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0.24%에서 2010년 0.29%로 약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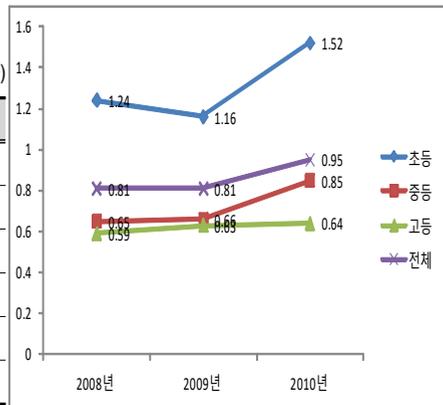
서울시의 학업중단율을 전국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0.29%로 전국(3.67%)에 비해 12배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초등학교	1.24	1.16	1.52	
중학교	0.65	0.66	0.85	
고등학교	일반계	0.87	0.90	0.84
	전문계	0.24	0.25	0.29
	소계	0.59	0.63	0.64
전체	0.81	0.81	0.95	

출처 : 서울교육통계연보(2008~2010)



〈그림 3-3〉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율

### 3.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 1) 전국 현황

전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유형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사’ 및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 모두 가사와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사유별)

(단위 : 명)

연도	학교급	유예 및 면제자						재입학 및 편입	사망	유학 및 이민	유급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소계				
2010	일반계	1,555	3,505	182	6,636	5,541	17,419	6,023	250	4,525	56
	전문계	512	4,858	293	8,632	2,826	17,121	1,673	133	236	16
2009	일반계	1,506	4,300	165	6,810	3,364	16,145	6,610	207	6,447	46
	전문계	466	5,869	507	9,457	2,006	18,305	1,675	131	381	12
2008	일반계	1,590	4,395	200	5,855	3,437	15,477	5,570	187	6,866	84
	전문계	584	5,805	834	8,160	2,083	17,466	2,469	156	334	23
2007	일반계	1,350	3,288	149	3,920	3,909	12,616	4,603	176	7,230	43
	전문계	618	4,769	713	7,049	2,165	15,314	1,438	137	367	32
2006	일반계	1,083	2,933	138	2,952	3,000	10,106	4,969	189	6,319	18
	전문계	439	3,782	514	6,087	2,088	12,910	1,740	118	321	16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6~2010).

조사기준 : 전년도 3월 1일~그해 2월 28일 기준

#### 2) 서울시 현황

서울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부적응’ 및 ‘품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수는 2008년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6> 참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점

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학업중단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6〉 서울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사유별)

(단위 : 명)

연도	학교급	유예 및 면제자						재입학 및 편입	사망	유학 및 이민	유급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소계				
2010	일반계	340	738	27	1,293	1,208	3,606	2,510	48	1,646	19
	전문계	51	518	55	957	428	2,009	72	4	38	5
2009	일반계	335	791	21	1,181	1,057	3,385	2,202	48	2,247	17
	전문계	49	679	54	1,210	422	2,414	100	6	83	2
2008	일반계	360	906	24	986	1,140	3,416	1,867	32	2,541	13
	전문계	60	781	90	1,283	427	2,641	99	18	68	2
2007	일반계	293	681	23	735	891	2,623	1,952	32	2,928	11
	전문계	65	752	68	1,321	383	2,589	84	13	76	7
2006	일반계	244	830	22	443	628	2,167	2,343	41	2,517	1
	전문계	46	701	58	1,323	287	2,415	-	13	60	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6~2010).

조사기준 : 전년 3월 1일~그해 2월 28일 기준

#### 4. 서울시 지역별 학업중단 현황

서울시는 지역별로 학업중단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학업중단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 대부분이 1.2%를 넘어서고 있다(〈표 3-7〉 참고).

자치구별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10년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마포구이며, 도봉구는 0.75%에서 1.4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마포구는 0.52%에서 0.92%로 70% 넘게 증가하였다. 구로구, 서대문구, 강

북구 등은 학업중단율이 높은데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절대적인 학업중단자수로 보았을 때는 강남구와 노원구, 송파구가 2010년 현재 각각 1,576명, 991명, 949명으로 많았다. 이 3개 구의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 것은 다른 구에 비해 학생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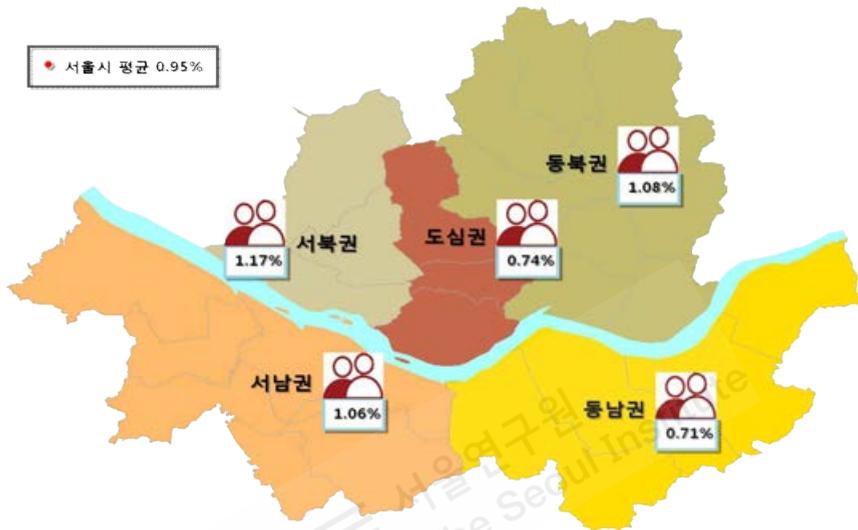
〈표 3-7〉 서울시 자치구별 학업중단율

(단위 : 명, %)

자치구별		2008년	2009년	2010년
도심권	종로구	416(0.71)	358(0.81)	275(1.02)
	중구	465(0.53)	409(0.58)	358(0.62)
	용산구	448(0.62)	418(0.66)	401(0.65)
동북권	성동구	452(0.80)	363(0.95)	269(1.24)
	광진구	435(1.20)	566(0.87)	402(1.16)
	동대문구	457(1.01)	525(0.84)	441(0.94)
	종랑구	329(1.59)	416(1.20)	356(1.32)
	성북구	789(0.74)	792(0.73)	717(0.78)
	강북구	295(1.24)	264(1.34)	249(1.37)
	도봉구	710(0.75)	422(1.20)	366(1.43)
	노원구	880(1.23)	1,251(0.84)	991(1.02)
	서북권	은평구	574(1.13)	598(1.06)
서대문구		429(0.94)	397(0.96)	289(1.25)
마포구		707(0.59)	485(0.83)	419(0.92)
서남권	양천구	863(0.95)	1,048(0.76)	785(0.99)
	강서구	1,248(0.64)	997(0.79)	992(0.76)
	구로구	617(0.84)	441(1.14)	390(1.24)
	금천구	757(0.44)	292(1.07)	265(1.09)
	영등포구	1,160(0.39)	511(0.86)	347(1.20)
	동작구	400(1.16)	408(1.09)	298(1.43)
	관악구	515(1.12)	523(1.06)	376(1.38)
동남권	서초구	769(0.67)	1,040(0.49)	794(0.66)
	강남구	1,462(0.53)	1,940(0.39)	1,576(0.48)
	송파구	963(0.94)	1,098(0.86)	949(0.96)
	강동구	582(1.09)	693(0.89)	608(0.99)
전체		16,723(0.81)	16,255(0.81)	13,381(0.95)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www.schoolinfo.go.kr](http://www.schoolinfo.go.kr)

2010년 생활권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이 1% 이상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인 반면, 도심권과 동남권은 각각 0.74%, 0.71%로 낮은 편이다(<그림 3-4> 참고).



참고 : 서울시교육청(2010). 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그림 3-4> 생활권별 학업중단율(201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서북권이 2.61%로 상당히 높고, 동북권, 서남권도 2%가 넘지만, 도심권과 동남권은 1%에 못 미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도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이 다소 높으며, 도심권과 동남권이 낮다.

〈표 3-8〉 2010년 서울시 생활권별 학업중단율(학교급)

(단위 : 명, %)

자치구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권역별 평균
				일반계고	전문계고		
도심권	종로구	46(1.79)	74(0.71)	121(1.04)	34(0.57)	275(1.02)	0.74
	중구	106(0.69)	44(0.93)	79(0.77)	129(0.36)	358(0.62)	
	용산구	124(0.84)	112(0.54)	103(0.67)	62(0.43)	401(0.65)	
소계		276(0.94)	230(0.67)	303(0.84)	225(0.41)	1,034(0.74)	
동북권	성동구	68(2.52)	69(1.30)	55(0.81)	77(0.35)	269(1.24)	1.08
	광진구	169(1.22)	126(1.01)	107(1.24)	0(0.00)	402(1.16)	
	동대문구	101(1.85)	106(1.13)	109(0.79)	125(0.17)	441(0.94)	
	중랑구	54(4.17)	142(0.93)	138(0.72)	22(0.63)	356(1.32)	
	성북구	125(2.12)	152(0.92)	179(0.64)	261(0.11)	717(0.78)	
	강북구	37(4.37)	120(0.90)	85(0.76)	7(0.83)	249(1.37)	
	도봉구	109(2.17)	103(1.26)	111(0.87)	43(0.40)	366(1.43)	
노원구	243(1.71)	275(0.99)	255(0.97)	218(0.37)	991(1.02)		
소계		906(2.08)	1,093(1.02)	1,039(0.85)	753(0.26)	3,791(1.08)	
서북권	은평구	75(3.85)	140(1.16)	158(0.84)	95(0.42)	468(1.33)	1.17
	서대문구	77(2.31)	132(0.83)	80(0.95)	0(0.00)	289(1.25)	
	마포구	103(1.92)	118(0.91)	120(0.54)	78(0.22)	419(0.92)	
소계		225(2.61)	390(0.97)	358(0.76)	173(0.33)	1,176(1.17)	
서남권	양천구	254(1.26)	315(0.83)	165(1.11)	51(0.25)	785(0.99)	1.06
	강서구	165(2.08)	187(0.86)	394(0.51)	246(0.22)	992(0.76)	
	구로구	46(5.01)	86(1.49)	128(0.75)	130(0.23)	390(1.24)	
	금천구	31(4.37)	92(0.90)	99(0.60)	43(0.24)	265(1.09)	
	영등포구	120(1.67)	110(1.01)	107(0.92)	10(0.60)	347(1.20)	
	동작구	90(2.34)	109(1.11)	79(0.98)	20(0.84)	298(1.43)	
관악구	82(2.93)	119(0.12)	140(0.83)	35(0.82)	376(1.38)		
소계		788(2.13)	1,018(0.98)	1,112(0.75)	535(0.30)	3,453(0.16)	
동남권	서초구	344(0.65)	307(0.48)	127(1.16)	16(0.30)	794(0.66)	0.71
	강남구	664(0.40)	549(0.39)	270(0.93)	93(0.25)	1,576(0.48)	
	송파구	343(1.16)	293(0.99)	252(0.91)	61(0.37)	949(0.96)	
	강동구	142(1.92)	168(0.97)	145(1.02)	153(0.14)	608(0.99)	
소계		1,493(0.78)	1,317(0.60)	794(0.98)	323(0.23)	3,927(0.71)	
총계		4,420(1.52)	5,462(0.85)	5,624(0.84)	3,372(0.29)	18,908(0.95)	0.95

참고 : 서울시교육청(2010). 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 5. 시사점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학업중단 시기를 반영하여 이들의 미래 및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시기이며,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더 큰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모색할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직업을 갖는 등 학습 외의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업과 학습을 고려한 학업중단 이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비율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학업중단과 가정의 문제를 암시하는 부분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진로 개척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의 계층에 따른 지원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의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로 학업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의미한다.

##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사업

### 1. Wee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Wee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2007년 Wee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도출 이후 2008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이 발표된 후 추진된 정부 정책 사업이다. 이는 위기학생 혹은 부적응 학생, 더 나아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대안교육으로 상담활동,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안전망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교사에 의한 선정이나 부모님의 권유와 안내, 학생 스스로의 의지로 참여하게 된다.

Wee 프로젝트는 ‘위클래스·위스쿨·위센터’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위클래스는 단위학교, 위스쿨은 교육지원청, 위센터는 교육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Wee 프로젝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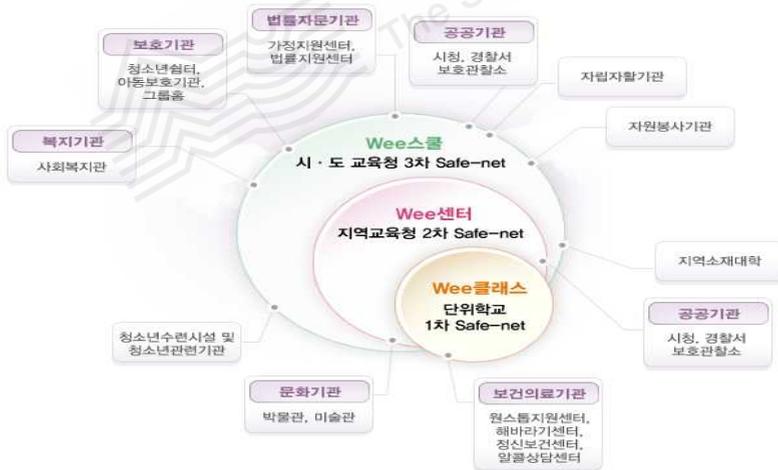
구분	위클래스(Wee Class)	위센터(Wee Center)	위스쿨(Wee School)
대상	Wee 프로젝트의 주 대상은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됨.		
선정방법	교사에 의한 선정, 부모님의 권유와 안내, 스스로 참여할 수도 있음.		
지원주체	단위학교	교육청단위	시·도 교육청
프로젝트 내용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생 쉼터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계하는 멀티상담센터로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하는 one-stop 상담센터	장기위탁형 교육기관, 소수 정예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실용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 진로직업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	진로탐색, 소질개발 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등 학생의 특기와 흥미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제공	심리검사 및 사례진단, 가정문제진단, 학교폭력, 위기유형별상담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년, 학급구분이 없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 학교교육이외 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제공

〈표 계속〉 Wee 프로젝트 내용

구분	위클래스(Wee Class)	위센터(Wee Center)	위스쿨(Wee School)
서비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에 운영하는 곳도 있음.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기기숙형
서비스 제공방법	클래스 운영 담당자,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서비스 제공	학생, 학부모의 직접 센터방문, 인터넷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	기숙을 통해 제공받음.
비용	무료제공	무료제공	무료제공
기타	Wee 센터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Wee 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됨. 단, 사전에 학교에서 동의를 얻은 후 참석해야 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Wee-학생위기종합지원서비스(www.wee.or.kr) 참고

Wee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고, 학생지원에 필요한 협력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5〉 참고).



출처 : Wee-학생위기종합지원서비스(www.wee.or.kr)

〈그림 3-5〉 Wee 프로젝트 네트워크 진행 과정

## 2.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2011). 이는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단순히 학업 중단 청소년이 아니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CYS-Net는 운영기관인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필수적 구성기관이 되는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등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상담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취업 의료 보호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의 희망여부를 확인한 후 연계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CYS-Net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사회보호 서비스, 교육 및 학업지원 서비스,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의료 및 건강 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서비스,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서비스, 법률 자문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YS-Net를 통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보면, 상담과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보호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YS-Net를 통해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009년에 총 28,956건에 달했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41.9%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33.9%, 사회적 보호지원서비스가 12.2%, 교육 및 학업지원서비스가 4.9%, 여가문화활동 지원서비스가 4.1%, 의료지원서비스가 1.7%, 자활지원서비스가 0.9%, 법률 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CYS-Net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사회적 보호 서비스	기초 생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교육 및 학업 지원 서비스	자활 지원 서비스	의료 지원 서비스	법률 지문 및 권리 구제 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합계
2007	1,091 (38.2)	503 (17.6)	884 (30.9)	147 (5.1)	35 (1.2)	63 (2.2)	12 (0.4)	124 (4.3)	2,859 (100.0)
2008	7,653 (503)	1,618 (10.6)	4,224 (27.7)	806 (5.3)	294 (1.9)	292 (1.9)	64 (0.4)	274 (1.8)	15,225 (100.0)
2009	12,146 (41.9)	3,535 (12.2)	9,819 (33.9)	1,406 (4.9)	271 (0.9)	501 (1.7)	89 (0.3)	1,189 (4.1)	28,956 (100.0)
증감추이	△5,527 (△1.9)	△1,516 (-2.7)	△4,467 (△1.5)	△629 (-0.1)	△118 (-0.2)	△219 (-0.3)	△38 (-0.1)	△532 (-0.1)	△13,048 (-)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2010)

한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한 인원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2009년 CYS-Net 서비스 이용 인원은 전년도 대비 21% 상승하여 총 98,020명이다. 남자는 48.8%, 여자는 51.2%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6	14,055	15,135	29,190
2007	27,845	29,054	56,899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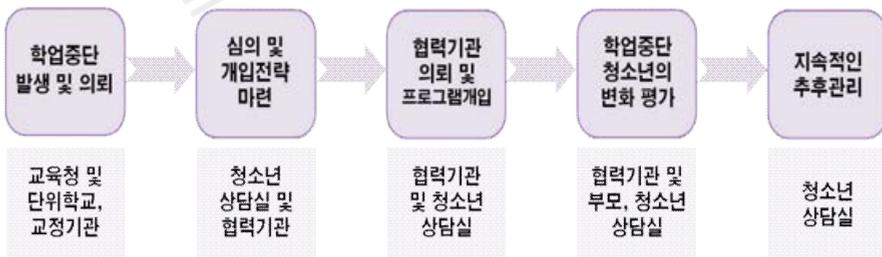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백서

### 3. '해밀'센터

해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다(해밀센터, 2011).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중심이 되고 지역 내 유관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밀센터는 서비스 대상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해밀센터는 2002년 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2~ 2005년 시범운영하였고, 2006년 CYS-Net 출범에 따라 포괄적 개념의 위기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CYS-Net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장·추진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제주에 지점을 두게 되었다.

해밀센터의 서비스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발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된다. 서비스 과정은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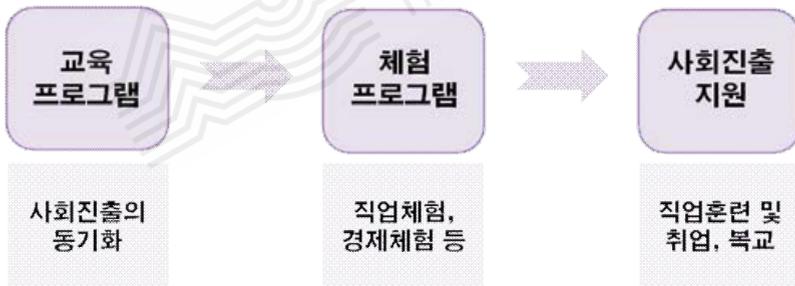
출처 : 해밀센터 홈페이지(www.hemilcenter.or.kr)

<그림 3-6> 해밀센터 프로그램 제공과정

#### 4. '두드림(Do Dream) 존' : 토탈 자립준비 프로젝트

두드림 존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토탈자활지원사업이다. 이는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주관하여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만이 아니라 교정시설 및 복지시설의 청소년, 시설퇴소, 가출, 학교부적응 등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 자립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12개소로 시작된 두드림 존은 2010년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다.

두드림 존 프로그램은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립동기와 구체적 자립준비, 자립준비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자립목표 수립, 취업이나 직업훈련 연계 및 복교가 그것이다. 두드림 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은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출처 : 두드림존 홈페이지([www.dodream.or.kr](http://www.dodream.or.kr))

<그림 3-7> 두드림 존 프로그램 진행 과정

### 제3절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과 사업

#### 1. 서울시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서울시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족정책관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정하고, 첫째, 생활권 단위 소규모의 다양한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제공, 둘째, 급변하는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셋째, 가족 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및 기능 다양화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3-12>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의 청소년관련 지원정책은 대체적으로 일반 청소년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 및 시설 확충,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며,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대안교육 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복지 관련’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3-12> 2011년 서울시 청소년 정책 시행내용

목표	청소년 정책	추진내용	세부내용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청소년 복지 및 교육지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두드림 존)
		•교육적·예방회복적 선도사업	-교육적·예방회복적 선도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지원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지원

<표 계속> 2011년 서울시 청소년 정책 시행내용

목표	청소년 정책	추진내용	세부내용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및 역량 증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유스호텔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증축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서울유스데이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서울 지방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추진 -청소년 야외체험학습장 운영
		•청소년 참여 활성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아버지날, 성년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행사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 상담지원 강화	-서울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구축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간접성 가치관 교육 및 시설운영
		•위기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운영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출처 : 2011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정책관, 2011).

한편,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의 2011년 세출예산 8,995억원 중 아동·청소년 예산이 1,328억이다(<표 3-13> 참조). 이 중 보육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아동)청소년 예산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7%에 불과하다.

〈표 3-13〉 201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0년	증감
총계	8,995	8,552	433(5.2%)
여성정책	433	542	△109(△20.1%)
저출산대책	871	836	35(4.2%)
보육	6,340	5,612	728(13.0%)
아동·청소년	1,328	1,537	△209(△13.6%)
아동복지센터	23	25	△2(8.0%)

출처 : 2011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계획(여성정책가족관, 2011).  
국고보조금 2,353억원(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대비 26.2%)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만을 보면, 2011년 현재 총 41,442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계	41,442	67,398	58,654	46,019	43,971	63,597

출처 : 2011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정책관, 2011).

## 2.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서울시의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체적으로 일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센터 등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는 정규 학교 부적응(중도탈락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현장의 학습지원 등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현장을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획(시장방침 제 45호)과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사업 시범운영계획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3-15>와 같다. 주로 대안교육 대상 청소년을 모집하고 교사교육 및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표 3-15>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업 개요

(2011년 3월 현재)

명칭	소재지	개관일	주요기능	직원	수탁기관
대안교육 프로그램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1.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교육 청소년 모집</li> <li>•교사교육 및 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8명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li> </ul>	사)한국청소년재단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여성가족정책관, 2011).

서울시는 18개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며, 2011년 예산은 781,112천원이다. 2010년 실적은 네트워크학교 운영비 등으로 총 917,776천원이 지원되었다.

〈표 3-16〉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2011년 3월 현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대안학교</li> <li>-네트워크학교(15) :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li> <li>-준네트워크학교(3) : 프로그램 만 지원 (인건비 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교육 현장 제공 : 18개 대안학교</li> <li>• 대안교육현장 교사인건비 일부지원</li> <li>- 15개 네트워크학교에 총 466,785천원(20,295천원/1인*23명) 지원</li> <li>• 징검다리 프로젝트<sup>4)</sup> 신규운영</li> <li>- 탈학교 청소년대상 진로체험 단기 프로그램(120백만원)</li> <li>• 대안학교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li> <li>• 네트워크학교 공동사업 운영 및 사회자원 연계</li> <li>• 부적응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콘텐츠 개발운영</li> </ul>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여성가족정책관, 2011).

2011년 현재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총 18개로 이 중 네트워크학교는 15개소(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민간운영 대안학교 11개소)이고 준네트워크학교는 3개소이다(〈표 3- 17〉 참조).

〈표 3-17〉 서울시 네트워크학교 및 준네트워크 학교

구분	현장명	소재지	정원 (명)	수업형태	주요사업내용
청소년 수련 시설 (4)	하자직업장학교 (서울시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55명	3년 6학기제	• 웹, 영상, 생활디자인, 대중음악작업 등 전문 직업프로그램 진행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용산구 갈월동	20명	3년 6학기제	• 미디어 전문지식을 통한 사회기여
	도시속작은학교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 연희동	20명	2년 4학기제	•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 체험교육
	대안학교 한들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구 문정동	20명	2년 4학기제	• 관계탐색, 진도탐색, 직업체험
민간 현장 (11)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청소년대안공간 꿈)	관악구 신림동	20명	2년 4학기제	•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 체험교육
	은평씨앗학교 (청소년대안공간 돌움)	은평구 녹번동	20명	2년 4학기제	•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 체험교육
	광진도시속 작은학교 (한국청소년재단)	광진구 증곡2동	20명	2년 4학기제	• 마음성장학교, 참여자치, 사회체험 교과, 인문교양강좌
	성장학교 “별” (사·청소년과가족의 좋은 친구들)	관악구 봉천동	40명	2년 4학기제	• 상담활동, 체험학습, 문화학습, 봉사활동

4) 이와 관련하여 ‘(2) 서울시대안교육센터-징검다리 프로젝트’에서 자세히 기술함.

〈표 계속〉 서울시 네트워크학교 및 준네트워크 학교

구분	현장명	소재지	정원 (명)	수업형태	주요사업내용
민간 현장 (11)	사랑사랑나눔학교 (재·청소년과 사랑사랑)	강북구 미아동	50명	1년 2학기제	•발달장애 청소년방과후공부방, 개별 인지 교육, 심리치료
	꿈틀학교 (사·청소년내길찾기)	종로구 혜화동	20명	2년 4학기제	•농촌체험, 테마여행, 집단상담캠프, 직 업특강
	셋넷학교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영등포구 영등포동	25명	1년 3학기제	•기본학습, 상담 및 예술체험
	성미산학교	마포구 성산동	80명	초·중·고 통합12년	•통합교육과정-프로젝트사업, 체험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운영
	민들레 사랑방 (청소년대안공간)	마포구 연남동	20명	1년 단위운영	•체험활동(자치 회의/달모임/탐방 활 동), 소모임 활동 및 프로젝트
	하늘꿈학교 (사·좋은씨앗)	송파구 가락2동	20명	1년 기속형	•탈북청소년 기속형 대안학교, 특성화 수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진로 및 생활 상담
	꿈터학교	송파구 오금동	10명	2년 기속형	•기속형 대안학교, 교과활동분야, 대안 문화분야, 전통문화분야, 특별활동
준네트 워크 학교 (3)	난나학교 (강북청소년수련관)	강북구	20명	1년 2학기제	•학력인정 교육청 위탁 대안학교
	링컨학교	중랑구	40명	고등과정 위탁형	•서울시 교육청 학력인정 위탁형 대안 학교, 2개학급 운영
	사랑의 학교	송파구	25명	중·고등 통합기속	•기속형(자립터) 대안가정 운영, 길거 리상담, 학교사회사업 등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여성가족정책관, 2011).

서울시대안학교의 18개 네트워크학교는 검정고시 지원(4월, 8월 검정고시 특강반 운영), 학교별 기초 교과 운영(국어, 영어, 수학, 역사, 철학, 미술, 체육, 인문학 등), 학교별 특성화 교과 운영(협동학습, 봉사학습, 체험학습, 예술체험, 생태교과, 문화학습, 여행 프로젝트 등), 상담 활동(적성검사, 인성검사, 일반상담 외),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능력 학습(관계 탐색과 관련한 프로그램, 일대일 멘토링 등), 진로 체험 학습(진로 적성 검사, 직업특강, 현장체험, 인턴십을 통한 직업 체험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난 10년간 미인가 도시형 대안 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

며,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18개 학습공간에서 700여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습을 지속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 2) 징검다리 프로젝트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08년 시범사업 후 현재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및 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는 돌봄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도시형 대안학교들을 지원하고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학습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이 센터는 도시형 대안학교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지역사회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를 돕는데, 징검다리 프로젝트(징검다리 학습과정)가 그것이다.

징검다리 학습과정은 서울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학교, 대안교육 현장이 공동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보와 배움을 찾고 자신만의 학습방법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참여 대상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배우길 원하는 13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징검다리 학습과정에는 서울시의 미술관, 박물관, 방송국, 공원 등을 자유롭게 들를 수 있는 거점공간과 음악, 여행, 글쓰기, 진로 찾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있다(<표 3-18> 참조). 거점공간은 징검다리 학습의 연계망이 되는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때, 징검다리 거점공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습상담, 멘토링, 단기 체험 학습과정 등 맞춤형 학습을 설계할 수 있으며, 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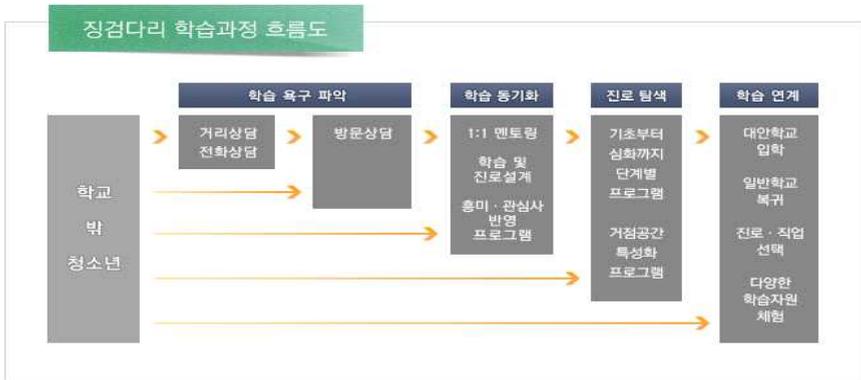
는 배움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공간으로의 연결을 돕는다.

〈표 3-18〉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거점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인테이크(Intake), 전화 및 방문 상담</li> <li>- 학습 동기화 프로그램, 개별맞춤형 학습 및 진로 상담, 1:1 멘토링</li> <li>- 인문학 글 읽기 수업</li> <li>- 대안학교 체험을 위한 단기학교 운영</li> </ul>
단기 학습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마댄스 : 무용 체험 및 공연 기회 제공</li> <li>- 10대 여행백서 : 여행과 장사 프로젝트가 결합된 경제 프로그램</li> <li>- 미영이 프로젝트 : 영상 제작 프로그램</li> <li>- 아지트 상담 : 거리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연계</li> <li>- 낚남, 찰칵, 글쓰기 : 청소년 자치 카페에서의 글쓰기 프로그램</li> </ul>

출처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내부자료

징검다리 학습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몰두해보고 또래들과 함께 배우길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며 배움의 과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대안교육센터와 다양한 대안교육현장이 함께 운영한다. 이처럼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연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흐름에 따라 운영된다.



출처 : 서울시 대안교육센터([http://step.active learning.or.kr](http://step.activelearning.or.kr))

〈그림 3-8〉 징검다리 학습과정 흐름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전일제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프로그램과 달리 학업 중단 청소년을 발굴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후 진로나 취업과 연계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을 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진성미·정연순·이혜숙(2009), p.30

〈그림 3-9〉 징검다리 학습과정의 성격

### 3) 기타 관련 사업

서울시는 학업중단 청소년만이 아니라 위기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구축·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해밀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술한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되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업이다.

#### ○ CYS-Net 구축·운영

서울시는 가출, 약물중독, 자살충동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구원, 상담, 취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One-Stop)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청소년상담실 간의 연계를 통한 중심적·종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서울시는 진로의식 고취 및 자립준비가 필요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청소년 자립준비 공간인 두드림 존(Do Dream Zone)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두드림 존은 1단계부터 3단계에 걸쳐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취업 및 진학 연계활동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 ○ 해밀 프로그램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학원 등과 연계하여 학습, 대인관계, 부적응 및 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 제4절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1. 영국

#### 1) Connexions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CYS-Net 시스템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청소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반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이다. 13세에서 19세까지의 위기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영국 교육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 Connexions 프로그램의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기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돕는 것이다. Connexions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의 지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회보장, 학습, 보호, 고용 등의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지원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 재인용).

- 위기청소년과 보호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개인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과 실질적인 지도를 받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지원

-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과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확대
- Connexions 프로그램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늘리고 역량을 확대

○지원 대상

13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영국의 의무교육 혜택은 16세까지이므로 그 이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운영 방법 및 지원 내용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며, 지방정부마다 특화된 운영과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다. 대체로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과 Connexions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PA(Personal Advisor)를 통해 청소년에게 일대일로 접촉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및 훈련, 극기, 문화 활동, 자기개발, 청소년 양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 교육, 진로상담, 지도, 개인밀착 상담사의 개별지도
- 또래 멘토링, 재정 지원 등과 같은 개별적 지원
- 학습과 성취에 장애 제거를 위한 전문적 조언
- 양육과 관련된 부모 지원
-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 학교교육이 끝난 뒤에도 추적시스템을 통해 NEET 청소년에게 취업기술 훈련 제공

## 2. 미국

### 1) Youth Build

#### ○ 프로그램의 목적

이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노숙자·저소득층용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찾으며 알맞은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청소년 본인의 문제해결과 리더십 향상, 저소득 지역의 주거, 교육, 취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지원 대상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16세~24세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 운영 방식

운영 기관인 Youth Build USA는 국가 비영리조직으로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주택도시개발부는 현재 200여개 이상의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난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지원과 지역사회 발달에 힘쓰고 있다.

#### ○ 주요 지원내용

- 주택건설 : Youth Build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6~12개월간 지역사회 내에서 노숙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 교육 : 집을 지으면서 고등학교 졸업과 GED<sup>5)</sup>(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직업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을 준비한다.

---

5) 미국·캐나다에서 정규 고교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종합교육개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또는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를 말함.

교육과정은 학업 준비와 기술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여 1대 1로 맞춤형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직업 교육 : 직업계획을 세우고 구직을 위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건설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리더십 교육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관계된 이슈를 살펴보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 상담 : 양육, 약물중독 등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졸업생 지원(사후관리) :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진로를 찾은 졸업생이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2) Job Corps

### ○ 프로그램의 목적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이 직업훈련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 ○ 지원 대상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16~24세의 위기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상담사의 판단을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 신청자 스스로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심각한 질병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운영 방식

Job Corps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운영하고 있으며, 124개의 Job Corps Center가 혜택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본질적이고 의미있는 기본 교육, 직업훈련,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Job Corps Center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1대 1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이 센터에서 생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센터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원 단계 및 지원내용

서비스 지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Outreach & Admissions(OA) - 찾아가는 서비스 및 입학허가

-2단계 : Center Operations -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짐(이 때, 교육, 직업훈련, 거주시설, 사회기술, 건강, 상담 등 서비스가 제공 됨).

-3단계 : Placement -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훈련(VST : Vocational Skills Training)과 실무경험프로그램 (WEPs : Work Experience Program)을 중심으로 훈련을 한다.

• VST(Vocational Skills Training) : Job Corps Center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을 연계해 목공작업, 페인트칠 등 특별한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WEPs(Work Experience Program) : 6주간 실무경험을 키우기 위해 작업장에서 일한다. 위기청소년들은 목수, 벽돌공, 건축, 기계공, 용접, 페인팅, 전기 기술 등 대부분 집을 짓는 일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키운다.

- 교육 : GED(종합교육개발 :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Job Corps의 교육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Job Corps Center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주거 및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 Job Corps의 큰 특징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거지원 서비스, 상담, 사회기술 서비스, 학생발달평가, 집단 내 관계 개선, 오락, 리더십 향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Baltimore 'YO!' Center

#### ○프로그램의 목적

YO! 센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나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폭 넓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구성원들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 대상

16~22세의 청소년, 구체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과 청년층(young-adult)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운영 방식

프로그램은 생활기술 수업 및 현장에서의 직업 기술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마다 고용 지원관(Employment Advocate)을 배정한다.

○ 제공 서비스

Baltimore ‘YO!’ Center는 친근함이란 전략으로,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들을 충족시킨다. 어른을 돕는 업무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기회를 계획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YO!’ Center는 다음의 지원서비스들을 제공한다.

- 쉽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서비스
- 기본적인 강의, 예비(Pre) GED와 GED 강의 제공
- 돈을 벌기 위한 교육과정의 온라인 강사와 코스
- 생활기술, 모임과 같은 사회적 이벤트
- 직업 강좌와 취업알선 서비스
-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와 시민약속
- 건강교육
- 약물 오남용과 정신건강 현장상담
- 휘트니스 센터 제공

○ 프로그램 내용

YO! Center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Futures Works, After School Matters, Youth Oppor-tunity Academy이다. 프로그램별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Futures Works :

- 성공을 위한 계획 수립
- 용기와 바람직한 자세, 학문적 성장을 도움
- 학업욕구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와의 의사소통
- 그룹 활동과 워크숍을 통한 생활기술 습득
- 필요에 의한 가정방문

- 학교 참여 독려
- 한 달에 한 번 개별 상담
- 개인 고민에 대한 조언
- 대학과 취업선택에 도움
- 학교유니폼 구입
- 학생활동 독려

After School Matters :

-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생활과 직업기술 향상
- 직업경력기술을 위한 참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학생과 그의 가족 능력 향상
- 성공적인 학업
- 부모와 고용주 간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
- 용기를 북돋이줌
-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원
- 대학입학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진행
- 직업준비훈련과 취업알선에 도움
-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움
- 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

Youth Opportunity Academy :

- 생활기술과 정신건강, 약물남용조사, 가정방문
- 보호자 및 동료와 토론
-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
- 학업지원

- 직업체험, 생활기술
- 게임, 영화, 문화체험
- 특별강연
- 옹호자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스텝
- 개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30일 동안 제공하고 사후관리

〈표 3-19〉 YO! center 프로그램

구분	Futures Works	After School Matters	Youth Opportunity Academy	PACT Evening Reporting Center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노동부(DOL), 고용부(MOED), Baltimore시 공립학교 협력</li> <li>• 빈곤학생,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방과후 취약한 시간을 위해 고안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0년 개소</li> <li>• 2006년 8월 대안고등학교로서 Baltimore시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이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의 남학생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함.</li> </ul>
제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을 위한 계획 수립</li> <li>• 용기와 바람직한 자세, 학문적 성장을 도움</li> <li>• 학업욕구 제고를 위해 담당교사와의 의사소통</li> <li>• 그룹활동과 워크숍을 통한 생활기술 습득</li> <li>• 필요에 의한 가정방문</li> <li>• 학교 참여 독려</li> <li>• 한달에 한 번 개별 상담</li> <li>• 개인 고민에 대한 조언</li> <li>• 대학과 취업선택에 도움</li> <li>• 학교유니폼 구입</li> <li>• 학생활동 독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li> <li>• 생활과 직업기술 향상</li> <li>• 직업경력기술 위한 참여</li> <li>•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학생과 그의 가족 능력 향상</li> <li>• 성공적인 학업</li> <li>• 부모와 고용주 간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를 북돋아줌</li> <li>•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원</li> <li>• 대학입학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진행</li> <li>• 직업준비훈련과 취업알선 도움</li> <li>•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움</li> <li>• 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술과 정신건강, 약물남용조사, 가정방문</li> <li>• 보호자 및 동료와 토론</li> <li>•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li> <li>• 학업지원</li> <li>• 직업체험, 생활기술</li> <li>• 게임, 영화, 문화체험</li> <li>• 특별강연</li> <li>• 옹호자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스텝</li> <li>• 개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30일 동안 제공하고 사후관리</li> </ul>

출처 : 'YO!' Center 홈페이지([http://www.yobaltimore.org/about\\_yo.html](http://www.yobaltimore.org/about_yo.html))  
 PACT(Pre-Adjudication Coordination and Training : 예비 사정, 협력과 교육)

###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을 종합해 보면, 이들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업중단자를 학교로 돌려보내는 정책,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나머지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학력인정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갖도록 권고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서울시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자립하여 자신의 미래를 꾸려 갈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을 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정책이 특정 분야 지원보다 토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위기청소년에 대해 토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가 단지 학습결손이나 학습 부적응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외국 사례처럼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원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요구 분석

제1절 면담조사 개요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제

제3절 기관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

제4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 및  
개선사항

제5절 시사점

## 제 4 장

#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요구 분석

### 제1절 면담조사 개요

#### 1. 대상자 선정과 면담 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 및 중단 당시의 상황, 중단 이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및 사회에 대한 요구 및 기대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부터 중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가급적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삶을 추적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 및 중단 원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면담 대상자를 모색하였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연구소,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협조를 구해 쉼터 및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서울시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면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담을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9명이며, 집단면접을 한 2명을 제외하

고는 모두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담당자 3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요구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종진<sup>6)</sup>은 면담 당시 학업중단 후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다녔으나 학교 공부에 대한 회의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서울 근교의 대안학교에 잠깐 다녔으나 학비 부담 등으로 그만두었다. 이후 집을 나와 유흥업소,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청소년쉼터를 알게 되어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였으며, 면담 당시 쉼터의 규칙 위반으로 단기쉼터에 있는 상태였다.

윤종민은 면담 당시 법원의 위탁 교육으로 단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학업부진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집 주변의 ○○실업고등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학교를 중퇴하고 지인의 소개로 음식점에서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아는 사람이 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조 일을 하였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훔쳐 파는 등의 비행행동을 하다가 경찰에 구속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위탁교육 6개월 명령을 받아 면담 당시 단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되었다.

이정희는 경기도의 한 종합고등학교 1학년 재학 때 학업을 중단하여 면담 당시 2년 2개월이 지났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으며 노숙을 거쳐 단기쉼터에 있다가 현재 그룹홈을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출이후 편의점,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지난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기는 학교 공부와 친구 관계에 회의를 느껴 일반계 고등학교를 그만둔

---

6) 면담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

지 1년 정도 지났으며, 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없고, 관악구에 있는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남미애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여 면담 당시 학업을 중단한 지 4년째였다. 관악구의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특별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다.

나민영은 서울시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지 4개월 정도 지났으며, 현재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소개로 인턴십을 밟고 있다. 그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으며,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도 없다.

이영희는 학업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중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서울시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집에서 기거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준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중단 이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힘들어지자 청소년쉼터를 찾아갔다. 면담 당시 서울의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의 면담 대상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면담 대상자(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이름	중단 이유	중단 시기 및 기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현재 상태	현재 주거	검정 고시
김종진	학교공부에 대한 회의	고2/2년 6개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검정고시 준비	쉼터	준비
윤종민	학습능력 부족 및 문제행동	중졸후/1년 6개월	음식점	위탁 교육 중	쉼터	복교
이정희	가정해체	고1/2년 2개월	편의점, 주차장, 주유소	대입 준비	그룹홈	합격
김민기	학교공부에 회의	고2/1년	없음	비인가형 대안학교	집	준비
남미애	재혼가정	중2/4년	없음	학습프로그램 참여	집	합격
나민영	왕따	고1/4개월	인턴십 참여	학습프로그램 참여	집	준비
이영희	왕따	중2/6개월	없음	학습프로그램 참여	집	준비
우준우	가정문제	고1/2년 6개월	편의점, 공장 등 다양	직업 있음	장기 쉼터	합격

위에서 살펴본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김종진 : 자퇴 → 비인가형 대안학교 → 가출 → 아르바이트 → 중·장기쉼터 → 단기쉼터
- 윤종민 : 중학교 졸업 → ○○실고 → 아르바이트 → 직업전문학교 → 소년원 → 쉼터(법원 위탁교육)
- 이정희 : 자퇴 → 가출 → 노숙 → 아르바이트 → 단기쉼터 → 그룹홈
- 김민기 : 자퇴 → 비인가형 대안학교
- 남미애 : 자퇴 → 비인가형 대안학교
- 나민영 : 자퇴 → 비인가형 대안학교 → 인턴십
- 이영희 : 자퇴 → 학습프로그램 참여
- 우준우 : 자퇴 → 가출 → 아르바이트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직업 활동)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시간을 잡아 실시하였으며, 주로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면담하기 편하게 생각하는 관련 기관에 연구자가 찾아가서 진행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3명의 면담 대상자 중 두 명은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며, 나머지 한 명은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자이다. 이들에 대한 면담 역시 연구자가 현장에 찾아 가서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 2. 조사 내용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의 주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학업중단 이전의 생활
  - 가족관계 및 가정에서의 생활
  - 학교생활(친구관계, 수업에 대한 흥미, 성적 등)
- 학업중단의 이유
- 학업중단 당시의 주변(가족, 친구, 교사) 반응
-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 주로 하는 일, 중단 전과 달라진 점
  - 중단 이후의 학습
  - 중단 이후의 아르바이트 등
  - 친구관계
- 학업중단 이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나 필요 지원 사항 등

부가적으로 관련 담당자에게는 기관에 오는 아이들의 특성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홍보 또는 주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여부, 기관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하는 역할,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일에서의 어려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면담 조사하였다.

##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제

### 1.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은 한마디로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교실에서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때론 친구들의 왕따로 고통받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교사로 인해 더욱 상처받으며 점차 학교에 대한 흥미를 상

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을 한 모든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청소년들이 말하는 공통된 학교생활에 대한 기억은 크게 ‘재미없는 공부’,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교실’, ‘친구들의 왕따와 미숙한 교사’, ‘학교에 대한 흥미 상실’, 그리고 ‘일탈’로 함축된다.

### 1) ‘재미없는 공부’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에서 비롯된다. 수업이 지루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부족하며 적성과는 거리가 멀어 학교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기는 학교 수업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없는 학교생활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 사례 1

앞에 걸어 다닐 때도 맨 날 땅 보고 걷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때리고 숙제 많이 내주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그만큼 쌓이고, 재미도 없는데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 오니까요, 저는 집에서 학원을 가라고 계속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랬었죠, 학교만으로도 되게 버티기 힘들었는데,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공부해라’ 이러니까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김종진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 보려고 했으나 학습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고 말았다. 지나치게 경직된 학교 분위기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 사례 2

한국에 와서 공부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했어야 했어요, 수학이나 영어는 다 괜찮았는데, 도덕, 역사 다 한국어로 다시 외어야 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아는데, 영어 단어로 아는데, 역사 시험 때 아니고, 과학시험 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답이면 이산화탄소를 영어로 썼어요, 근데 그걸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퇴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요,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매력적이기보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 2)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교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수용되는 곳이 아니었다. 수업은 입시를 위해 또는 진도를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인 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소중한 인간으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 주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질문이 무시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민기가 회상하는 학교 모습이다.

## 사례 3

일반 학교는 제 의견을 안 물어봐요, "왜요?"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일반학교는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엎드려뻥쳐' 시키고, "왜요?" 그 두 글자만 말했는데요,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좌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 3) 왕따와 미숙한 교사의 대처

학교에서 친구들의 왕따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위에 기술한 학업과 관련된 문제보다 친구 관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친구들의 왕따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은 왕따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 심리적 압박 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왕따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례는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 사례 4

되게 비참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아는 애들이 많으니깐, 더욱 더 자존심이 낮아지는,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그리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랑 꼭 통화를 해야지만 애들이 '어 재는 좀 아는 애가 있구나,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꼭 바쁜 척 했어요, 혼자서요(남미애),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왕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착화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다고 한다.

#### 사례 5

제가 원래 작년에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다가 또 다시 다녔던 학교에 전학을 갔었어요, 근데, 아는 애들은 다른 반에 있고, 모르는 애들하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랑 친하지 않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랑 친하고 싶은 나머지 너무 욕심이 과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인해 배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일련 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잘해주니까 어떤 여자애가 시샘이 났나봐요, 개는 좀 노는 애였는데 체육시간이었나 같이 짝지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와 짝짓기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이제 왕따라는 게 낙인이 되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남미애),

이후 남미애는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미숙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왕따로 낙인찍히고 왕따가 더 심해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한다.

#### 사례 6

선생님한테 말을 했는데, 자리를 바꾸는 시간에, 우리 반에서 왕따인 여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애랑 저는 앉고 싶은 자리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셋 우리 세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아예 배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남미애),

왕따로 인해 친구가 없어지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 다닐 때 외로웠다고 말한다. 왕따로 인한 외로움, 상처 등으로 인해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

#### 4) 문제행동, 그리고 일탈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이 가출로 이어지면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재미없고, 학교를 다닌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나민영은 가출을 하고 그로 인해 출석 일수가 부족하여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사례 7

나민영 : 저는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는요, 되게 잘했어요, 공부, 아 공부는 못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언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언니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 이랑 놀다보니깐 인제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는 게 너무 높은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서요, 나중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학교 출석만 해라 이래서 갔는데, 수업 듣기 싫은 수업은 안 하고 그냥 갔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학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일 남았는데, 3일만 결석하면 이제 학교 잘린다고요, 선생님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안 갔어요, 노는 게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요?

나민영 : 그냥 놀아요, 보통 주말이나, 그때 놀아요, 그냥 노래방가거나 안 좋게 놀죠, 그냥 애들이랑,,, 그냥 술 먹거나,,, 술집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네 집에서 술 마셔요, 술은 얼굴 그냥 색은 애가 사라 가요,

한편, 비행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절도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한다. 비행이나 일탈 행동으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데 이럴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단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종민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 절도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탈행동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다니던 직업학교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사례 8

저는 집안 사정 때문이에요,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애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돈을 번거예요, 저도 호기심으로 처음에 따라 했다가 계속하게 된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깐요,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하니 그걸로 쓰다가 경찰 아저씨들에게 걸려서 조사받고, 요번에 분리심사원 들어갔다가 그 전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직업전문학교요, 근데 거기는 출석일수가 10일 동안 안 나오면 잘린데요, 판사님이 분리심사원에 3주 동안 들어가라고 했고, 저는 학교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분리심사원은 출석일수가 된데요, 법원에서 출석일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면회가 왔어요, "종민아 학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너 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다 알아봤는데도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출석일수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거는 직업 전문학교라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3주후에 다시 재판을 했어요, 학교가 안

되었다고 하니깐 처음에는 영등포에 있는 살레시오에 보냈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갇혀 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다시 재판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6개월 동안 살래요, 잘 살다가 다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되었어요(윤종민),

## 2. 학업중단 후의 생활

### 1) 안정되지 않은 주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가장 먼저 사회 현실에 부딪치는 문제가 주거이다. 특히,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당장 ‘어디서 자느냐’가 큰 걱정거리다. 학업 중단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쉽터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후에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잠을 해결하거나, 이것도 어려울 경우 노숙을 하게 된다. 면담을 했던 학업중단 청소년 중 집을 나온 청소년 모두 유사한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로 집을 나온 이정희는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 사례 9

이정희 : 찜질방만 가서 자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연구자 : 노숙을 많이 한 셈이네요, 주로 어디 가세요?

이정희 : 지하철에서 애들이랑, 호호~ 이러면서요, 공원 같은데는 발이 얼어서 못 걸겠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 발을 누가 잘라 줬으면 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얼어가지고, 끄꿍 얼어가지고, 그래서 눈은 계속 감기고,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막 마비 되가지고요,

이처럼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당장 닥친 문제가 주거이며 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집을 마련하거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한 노숙 등의 불안한 주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운 좋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생겨 고시원이나 원룸 등 월세를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몇 십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 사례 10

노숙도 해보고, 그다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러면 고시원 맨 위 옥상에 가면, 라면 있고, 김치 있고, 하거든요 라면사서 끓여먹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돈이 좀 더 생기면 원룸이라 해서 혼자 사는 곳이나 여럿이 같이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보증금이 없고 한 달에 5십만 원 4십만 원씩 내고 사는 거예요, 밥도 아침도 다 주고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있다가 돈을 좀 더 벌면 보증금을 내는 곳을 들어가고 보증금 내는데 있다가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죠 (김종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서 생활비와 월세를 해결하기는 벅차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시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에서 기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우 적으며, 이들의 표현을 보면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 면담자 중에서 처음부터 청소년 상담전화인 1388을 통해 청소년쉼터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이 노숙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정희는 추운 겨울에 노숙을 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난 후 경찰서에 가서야 쉼터를 알았고, 경찰서의 연락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다.

## 사례 11

제가 사고치고 경찰서 가면 경찰 아저씨가 데려다 주는, 집이 없다고 하니깐 데려다 주는 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깐 전에 전혀 그런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같이 다니는 애들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고 들은 게 있어야 어떤 조치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1318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몰랐었죠, 그리고 세 번밖에 안된 다던데요, 전화해서 시설로 갈 수 있다는 게 세 번밖에 안된데요(이정희),

이와 달리, 학업중단 시부터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거처를 해결해 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생활을 하다 더 이상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쉼터에 전화를 해 들어온 경우도 있다.

## 사례 12

연구자 : 그럼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준우 : 저는 처음에 8월에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에 올라 왔어요, @@단기 쉼터에 있다가, 거기서 처음에 퇴소를 일찍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요, 나오고 나서 @@에 있다가 친구가 제 고향친구가 아예 서울에 전학을 갔었어요, 그때 방학기간이고 하니까 친구 아버지가 일 하시는 데서 좀 일하다가, 친구 집 앞에 고시원을 잡아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그냥 하루살이 생활을 했거든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요,

연구자 : 고등학교 때 나와서요?

우준우 : 네, 그러다가 12월 그때는 11월쯤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연락해 보자고 해서 연락하고 있다가 거기서 인제 단기에서 한 달 있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들어왔으니깐 거의 7~8달 정도 되었어요,

쉼터에서의 안정된 생활도 그리 길지 않다. 단기쉼터의 기거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쉼터에서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여러 단기쉼터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본 경

힘을 가졌다고 말한다. 쉼터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쉼터를 전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일컬어 ‘쉼터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왔으나 숙식 해결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므로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소년쉼터가 있기에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며, 3개월이라는 단기쉼터의 입소 기간의 제약으로 쉼터돌이의 행렬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집이 없어 숙식이 해결되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서로 전국에 있는 쉼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한 쉼터에서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쉼터로 옮겨 가는 등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그만큼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숙식의 문제는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쉼터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아르바이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우선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주거문제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이다.

면담에서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의 필요성은 더욱 큰 편이었다. 특히, 가정의 지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게 되는데, 주로 일하는 곳은 음식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주차장 등이다. 직업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서빙, 정리, 판매 보조 등의

일을 주로 한다. 다음은 음식 체인점에서 2달 정도 일한 경험을 들려준 윤종민의 사례이다.

### 사례 13

크레이지 해물떡볶이 집에서 친구랑 같이 슬러시 만들고 사장님한테 요리를 배우고 서빙을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서빙도 하고 슬러시도 만들고 오다리 튀김이나 상추튀김이나 그런 거 다해서 다 요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열 두 시간 정도 일을 했죠(윤종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기관에 생활 거점을 두는 경우 관련자들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선택 시켜주는 곳은 많지 않다. 편의점에서도 “자퇴를 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일을 주는데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의 사례는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 사례 14

고등학교 자퇴하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고 다니다 보니깐, 제가 일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하는 것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들어보니 고등학교 자퇴했다 그러면 솔직히 자퇴인지 퇴학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깐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할 줄 알았어요(이정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벅차다. 이들은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등에서 용돈을 벌며 쓰다가, 점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김종진은 학업중단 초기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서 잡일을 거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여 이후에 유흥업소 일도 하게 되었다.

#### 사례 15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주유소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유소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깐 야간 본부장님이란 직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간에 본부장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가 18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거하면서 관리하고 주유소 관리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180(만원) 정도 벌었는데, 그 정도 벌다가 그러다보니까 월세방이 정말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부터 보일러 값 이런 거 다 내야하고, 핸드폰비도 다 내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을 못 만나요, 친구들과도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있다가 주유소일보다 더 벌어야겠다 했는데, 솔직히 제 나이에 이거보다 더 벌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나이트 호빠라는 곳이 있어요, 호빠를 해 봤어요(김종진).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구하는 만큼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으며, 대체로 3~4개월 정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성 부족을 이들의 특성으로 설명하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살펴본 지속의 어려움은 “일이 힘들다”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돈이 모이지 않고 탕진된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번 돈을 하루에 다 써 버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의 사용에 대한 자기관리가 부족한 편이다.

#### 사례 16

오토바이센터 아는 형네 가게에서 잠깐 보조로 일 했는데, 그거는 한 달 40만 원을 벌었으니까 모아 보려고 했는데요, 그거 한 진짜 3일 만에 썼어요, 어디 가는데 “너 어디냐?” 이러면 “아! 내가 택시비 내줄테니까 와라” 그런 돈에 거의 다 쓴 거 같아요, 애들이랑 뭐 먹고요, 돈을 너무 흠뻑 흠뻑 썼어요(윤종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의 강도와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을 지속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면담을 했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그나마 지속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장기썬터에서 기거하면서 인근의 공장에 다니고 있는 우준우에 불과하다. 기관 담당자의 표현에 따르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며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가출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학업중단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기관의 도움으로 인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인턴을 해 볼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나민영은 기관 담당자가 이런 통로를 통해 인턴십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현재 여성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고 있다.

#### 사례 17

거기 ‘○’이라는 여성지원단체센터예요, 거기서 가게를 낸 거예요, 거기에 썬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냥 재미있어요, 다른 데랑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힘들다고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개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재미있다고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거기가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요, 캠프도 가고요, 공동체 이런 것도 하고, 웃도 만들어서 팔고요(나민영).

이렇게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을 하면서 생활해 나간다.

### 3. 학업중단 후 배움

#### 1) 검정고시 준비

면담을 통해 만나 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검정고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 공부를 하기 싫었다던 학업중단 청소년도 학업중단 후 초기에는 등교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하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데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례 18

졸업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다 어리니깐 그래도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윤종민).

#### 사례 19

무조건 고졸은 해야 해요, 무조건! 그냥 말로 해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면 되거든요, 저도 어른들이 몰랐어요, '그 나이 때 공부 안하면 후회한다'고 했는데 몰랐어요 (우준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졸업장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이정희는 검정고시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례 20

성지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갈 거면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게 낫다고 가서 노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 성격이 워낙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 가느니 솔직히 놀고 싶었어요, 집에서든 똥굴똥굴 그래서 학교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이라고요, 그러면 검정고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봐서 좋게 하자 그랬는데, 잊고 살다가 문득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사람취급 못 받을 거 같다는 생각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났죠(이정희).

한편, 현실적인 이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있다.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중단 이후 2~3년 후의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보게 된다. 현재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가정을 꾸려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 사례 21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돈이 잘 모이겠지만, 모을 수가 없고, 결혼을 하면은 제가 평생 가지고 있을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나아야 하니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김종진).

## 사례 22

인서울 간판 달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고졸 신세로 취업을 하는데 '검정고시 졸업자다' 취업에도 뭔가 크진 않겠지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그래도, 저는 대학까지 가겠다고 진짜 막 다짐까지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우준우).

검정고시의 필요성을 느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 비인가형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쉼터에 기거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곳의 지원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종진도 면담 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8월에 시험을 볼 생각이라고 하였다.<sup>7)</sup>

### 사례 23

김종진 : 8월에 검정고시를 봐요, 8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가려고요,

연구자 : 그러면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종진 : 제가 내일 토요일에 중·장기쉼터를 다시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해요, 거기는요,

연구자 : 거기 공부시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김종진 : 네,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도 외부에서 오고 거기도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검정고시 기간 동안은 그렇게 공부하고 다른 때에는 놀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 사례 24

우준우 : 저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쉼터 안에 집 나온 친구 몇 명 자퇴한 친구들을 보면요,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그래도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좀 한 애들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연구자 : 독학하는 게 힘들었나요?

우준우 : 독학을 하려고 해도 시험이 쉽진 쉬워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배워갈 수 있는 건데요, 독학하려면 의지도 강해야 하고요, 쉼터에서 막 지원도 해주고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저녁시간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요, 특히 여기서 힘들죠, 지켜지기도 힘들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

7) 검정고시 시험은 1년에 4월과 8월에 볼 수 있다. 때문에 여기에 맞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준비를 한다.

면담을 한 학업중단 청소년 중 3명은 이미 검정고시를 합격하였다. 이들 모두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현재도 그룹홈이나 중·장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던 고졸 학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노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던 이정희는 쉼터를 거쳐 그룹홈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사례 25

그리고 졸업을 하니깐 올 4월에 붙었어요, 작년까지 놀다가요, 간당간당 했었어요, 이제 대학을 가야죠, 원래 대학 가기 싫었거든요, 제 꿈이 영화배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막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요, CJ 도너츠 같은 데서 꿈이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꿈을 위한 어떤 그런 지불을 해도 좋다, '소비를 해라'라고 해서 준거예요, 4백만 원을 받아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입시, 대학가는 그런 거요(이정희).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학 준비를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한다. 비인가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남미애 역시 혼자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 사례 26

전 고3이니깐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네들은 아무튼 학교에서 공부를 빠르게 시키는, 거기에 꼭 빠져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지금 정시를 볼 수준이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되고, 고 3이 적다보니깐 애들 수도 적고 그래서 분위기 형성이 안 되니 자꾸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저 혼자 수시 준비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이 코치해주셔서, 보통 혼자 준비해요, 딱 정해진 길이 없으니깐 너무 막막해요(남미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는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정고시를 통과한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보기 이전과 달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생성되고,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사례 27

이정희 :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요, 그렇다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난 벌써 고등학교 졸업했다, 조기졸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하루 공부하고 검정고시 붙었고, 막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도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연구자 :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정희 : 세상 탓만 했죠, 왜 나쁘게 생각하고 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차별하고 무시하고 지들은 얼마나 잘 남기에 이뤘는데 지금은 다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말고 나밖에 안 보여요,

또한 검정고시 합격은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학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가미되는데,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하면 그만큼 성실하다는 의미로 주변에서 인식해 주는 것이다.

#### 사례 28

우준우 : 처음에는 제 친척들이 참 많이 뭐라 하셨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만두냐는 반응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검정고시 딴 거하고 안 딴 거하고는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연구자 : 어떻게요?

우준우 : 일할 때 '학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검정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러면 칭찬 비슷하게 해주세요.

## 2) 대안학교 다니기 : 공부의 의미 발견

학업중단 청소년은 정규 학교를 그만둔 뒤 대안학교나 대안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을 지속하기도 한다. 면담에서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들을 위해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징검다리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와 달리 여러 면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장 큰 변화는 정규 학교에서와 달리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규 학교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대안학교에서는 수업 방식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하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매사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사례 29

되게 많이 변했죠,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생각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제 의견을 밝혀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의견을 바로 밝혀요, 막 공동체 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그냥 참관을 할 뿐이고 우리들끼리 다 학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학교 이름이 맘에 안 든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런 의논들을 하니까 이거는 학급회의를 선생님이 회의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인문학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학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영화나 책 같은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 자기 비판하기도 하고, 그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 '아.. 이런 영

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시점에서 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 시점에서 나오니까요, 우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니까, 익숙해져서 저도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되고, 시점을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김민기).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정규 학교에 다닐 때와 달리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대안학교에서의 수업이 흥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겨워하던 학교 공부와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교과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 사례 30

시간표 맞춰 공부하는 것도 일반학교랑 같은데, 그래도 교육하는 방식이나 뭔가 교과학습이 재미있고 신기하고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학교는 교과학습이 국어, 수학, 도덕 이런 것어요, 그 공부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잖아요, 학생들이요, 우리 학교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이런 거, 근본적인 이유나 참된 의미 같은 것도 알려 주고, 토론을 많이 해서요, 다양하게 생각을 펼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남미애).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후 주로 집에 있다 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희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 사례 31

처음에 ○○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학교 그만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정고시 준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밖에서 뭔가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밖이 어떤지, 무서워지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기분이 내려가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만나고 그러니까 나은 거 같아요, 훨씬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컴퓨터만 하게 되고요, 그거는 있어요, 나오고 나서는 뭔가 시야가 넓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뭐 이런 거 느껴어요, 어떤 걸 하던지, 그런 거에 의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영희).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 율타리에 있는 학생 때와 달리 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말한다.

### 사례 32

근데 제가 철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제가요, 성격도 변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나민영).

### 사례 33

일반 학교 친구들 보면 '나도 저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되게 방황하는 게 보이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가면 위험한 애들도 있고, '아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나도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저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날 그렇게 봤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김민기).

이렇게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 4. 학업중단 이후의 명암

### 1) 중단 이후의 어려움 : 궁핍, 단절, 무시, 그리고 유혹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둘 때 자신들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학업을 중단하고 나면, 학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단을 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라도 이들은 적잖은 심리적 타격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 및 나쁜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궁핍

학업을 중단한 이후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나와 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많이 해당하는데, 면담했던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호소하였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주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무작정 집을 나온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은 청소년쉼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숙을 하거나, 다행히 고시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

#### ○ 관계의 단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구 관계가 단절된다. 물론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비슷하게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과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 중단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또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돈벌이에 급급해 친구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가정사의 문제로 학업중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이 학업중단 이후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김종진은 말한다.

#### 사례 34

연구자 : 중단 이후에 어떤 점들이 힘들었나요?

김종진 :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요,

연구자 : 혼자 있었어요?

김종진 : 아프면 혼자 끙끙거리고, 병원가게 되고요,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요,

연구자 : 친구가 없어요?

김종진 : 친구 있어도 친구들이 위로는 되겠지만 100% 치유되지 않잖아요, 금전 문제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게 힘들죠,

연구자 : 그럼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종진 :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받아요,

#### ○ 주변의 무시와 따가운 시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 사회에서 실감하는 어려움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뼈뺀 시선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행이나 일탈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학교를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 사례 35

학교 안다니한다고 하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아바도 학교를 다니라고 학교를 안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학교 그만두면, 다 생각 없고 개념 없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나민영),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알아 볼 때도 불이익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면서 자퇴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선뜻 일을 내주는 곳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 사례 36

제가 자퇴를 하고 나니 다 무시하죠, 솔직히 고등학교도 안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일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하는 것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들어보니 고등학교 자퇴했다 그러면, 솔직히 자퇴인지 퇴학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이정희),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로 위장이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척하는 것이다.

### 사례 37

초반에는 학교 가야할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불편했어요, 초반에는, 저 혼자 눈치를 본거죠(김민기),

### 사례 38

그래서 저는 미용실 가면 대학생인 척하고요(남미애),

### 사례 39

학교가 쉽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시선이 어떨지 그게 싫어요, 불편하거나 이렇까 봐서요, 무서운 거죠(이영희),

### ○비행의 유혹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등교하지 않게 되면서 규칙적인 일상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굳이 일찍 일어나 학교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 관리가 훈련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주어진 많은 시간을 주체할 줄 몰라 한다. 이런 와중에 손쉽게 유흥이나 비행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윤종민은 학업을 중단하고 나니 “사고 칠” 일이 많았다고 말한다.

#### 사례 40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막 애들이랑 담배피우고 술 먹고 나쁜 짓하고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거 같아요, 경찰서에 새벽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엄마랑 같이 나가고, 재판보고 그러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요, 그리고 엄마 돈도 좀 많이 들었어요, 막 애들이랑 당구장도 가고요(윤종민),

### 2) 중단 이후 얻은 것 : 탈피, 탈출, 그리고 ‘꿈’의 발견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진 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무의미하고 답답한 학교 탈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좋은 점으로 무엇보다 먼저 학교를 벗어나게 된 것을 꼽는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의미 없는 학교생활을 중단하여서 학교라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이 학업중단 이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견은 왕따, 가출, 학교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통된다.

#### 사례 41

그다음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거, 학교에서 물론 잘 앉아 있지도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요(이정희),

#### 사례 42

일반학교를 그만두고 나니 그냥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남미애),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난 데서 오는 자유로움,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세상을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학교라는 울타리’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드는 생각으로, 만약 학생 신분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 사례 43

힘들 때 되게 배고플 때 학교에서 급식 먹고 싶고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사회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 나이에 정말 어울리는 소속이고, 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깐, 차라리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리고 싶은데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의 생활이 정말로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 바빴으니까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투를 해서, 좋은 점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무시당하고 그럴 때 학교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맘이 들었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이정희),

#### ○왕따 및 폭력 가정에서 탈피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한다. 학교생활 중단은 곧 친구들의 왕따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사례 44

그리고 대안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일반학교에서는 많이 왕따였는데, 여기서 제가 왕따가 아니라는 사실이 되게 좋았어요(남미애).

역시 가정 내에 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도 학업중단은 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 사례 45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안 다니는게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질 수 있고요(이정희).

이렇게 학업중단이라는 처방이 왕따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가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 ○시야의 확장 및 '꿈'의 발견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나름의 관점과 생각이 형성된 것을 학업중단 이후의 나아진 점으로 들고 있다. 이들은 학생 신분이었을 때와 달리 사회와 부딪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야가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한다.

#### 사례 46

그거는 있어요, 나오고 나서는 뭔가 시야가 넓어진 거 같아요(남미애).

#### 사례 47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그만둔 게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혼자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철이 든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인제 약간은 개념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개념 없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우준우).

무엇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를 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는 없었던 꿈을 발견하게 된다.

#### 사례 48

좋은 점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제가 되게 밝아져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겼고요, 생기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전 지금도 좋고요, 계속 하고 싶고요(김민기).

윤종민은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정희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우준우는 대학을 진학하고 난 후 군대에 갔다 와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꿈이 생기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고, 이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연기학원이나 보컬학원을 다니는 등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3절 기관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

### 1. 기관에 오는 학업중단 청소년

#### 1) 입소 조건

##### ○ 자격 및 입소 유지 기간

청소년 거주 기관인 쉼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관 관계자들은 단기쉼터의 경우 길어야 최대 3개월까지, 중·장기쉼터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비록 거주 기간이 다 차지 않아도 20세가 되면 더 이상 쉼터에서 머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쉼터는 20세 이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입소하게 되는 것이다.

#### 사례 48

저희가 기관의 특성인데요, 단기쉼터이다 보니까 3개월 입소 기한이거든요 (단기쉼터 관계자),

#### 사례 49

보통 20세까지 있습니다, 만 나이는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로 20세까지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입소 지역

현재 서울에 청소년쉼터는 총 11개소<sup>8)</sup>가 있다(2011년 서울시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2011). 이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쉼터들은 입소 지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타 지역 거주 청소년도 서울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

#### 사례 50

전국에서 오죠, 지금 제주도 아이도 있고, 경상도 아이도 있고,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중·장기쉼터 관계자),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서울시 청소년쉼터는 포화상태이며,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출팸(가출Family=줄여서 가출Fam)’이

---

8) 서울시 청소년쉼터는 2011년 현재 시립 5개소, 구립 3개소, 민간 운영 3개소가 있다(서울시 기준). 이를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해보면, 일시쉼터 1개소, 이동쉼터 1개소, 단기쉼터 5개소, 중·장기쉼터 4개소가 있다.

란 이름의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명 ‘쉽터들이’라 하여 전국에 쉽터들을 돌아다니며 거주 및 생활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쉽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쉽터를 평가한다고 한다.

#### 사례 51

서울, 경기권을 돌다가 전국쉽터를 떠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쉽터 내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자취를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단기쉽터 관계자).

## 2) 입소 경로

단기쉽터나 중·장기쉽터 등 청소년기관에 들어오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오게 된다.<sup>9)</sup> 자진하여 입소하는 경우와 타 기관과 연계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 ○ 자진 입소

자진 입소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가출한 청소년들이다. 앞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쉽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거주공간을 알아보고 스스로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직접 찾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

9) 단기쉽터나 중·장기쉽터 등 청소년 유관 기관에 들어오는 청소년이 반드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청소년을 말한다. 이후로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사례 52

보통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은 가출 청소년들이고요, 섞여 있어요, 그 중 학교 다니고 있는 상황인 가출 청소년도 있고요,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보통 자진입소, 자기들이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단기쉼터 관계자).

### ○ 타 기관 연계 입소

자진 입소 이외에 타 기관 연계로 쉼터에 입소하기도 한다. 이는 자의에 의하 기보다 타의에 의해 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 기관 연계에 의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쉼터에 오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보호관찰명령에 의해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이 있다.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들이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분리심사원에 있다가 쉼터로 오기도 한다.

둘째, 아동 보호기관과 연계에 의해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 방법은 가정폭력 때문에 청소년을 가정에서 분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즉 가정폭력으로 인한 최후의 방법은 분리라고 보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가 기간이 비교적 긴 쉼터로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청과 연계하여 기관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대안학습의 일환으로 쉼터로 오는 경우가 해당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는 학업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계하는 경우이다.

넷째, 타 쉼터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있다.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중·장기 쉼터에서 규칙 위반 등으로 퇴소 조치를 받게 되면 단기쉼터로 연계해 온다. 이후 중·장기쉼터로 복귀하기 까지 단기쉼터에서 머무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단기쉼터는 최대 3개월만 거주할 수 있어 대부분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이 중·장기쉼터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

### 사례 53

타 기관과 연계된 것 중에서도 보호관찰 명령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연계 되어 가정폭력으로 분리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오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제가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대안교실 프로그램 학교에서 별점 받은 학생들이 대안교실 프로그램, 특별교육 이수라 하여 그것 가지고 오기도 해요(단기쉼터 관계자).

이런 경로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쉼터 등 관련 기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중·고등학생 또래의 10대라는 점이다. 담당자들은 초등학생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쉼터의 특성상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초등학생들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란 것이다.

### 사례 54

초등학생은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오면 형들에 대한 위압감 증압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단기쉼터 관계자).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쉼터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첫째, 방임과 가출이다. 담당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혹은 현재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한다. 특히 방임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방치로 발달단계 별로 거쳐야 할 과업들을 학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례 55

특히 아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방임이에요, 그러니깐 집에서 어릴 때부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없다든지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주로 인제 많죠(단기쉼터 관계자).

### 사례 56

그렇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서 부모로부터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요(중·장기쉼터 관계자).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모의 방임은 가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담당자들은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쉼터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출로 인한 자진입소라고 말한다.

### 사례 57

그렇죠, 그게 사실 약간 비례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을수록 아이들이 더 가출하는 비율이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0% 맞다고 말 쏘드리긴 어렵고... 얼마 전에도 부모님이 교수이고 학교 선생님인데 가출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형편이 안 좋을수록 가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중·장기쉼터 관계자).

둘째, 부적응과 비행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중 또 하나가 학교 부적응이다. 담당자들은 부모와 학교의 무관심이 이들 청소년에게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가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례 58

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가 집을 나오고 인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거리 생활도 많이 하고(중·장기쉼터 관계자).

또한 가정에서 방치된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과 더불어 비행행동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크게 한다. 절도, 폭력, 가출 등으로 이어져 학업중단에까지 이르게 되며, 비행행동으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기도 한다.

#### 사례 59

아이들을 보면, 절도, 폭력, 그런 걸로 보호관찰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중·장기쉼터 관계자),

셋째, 지속성의 부족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이는 특징 중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받은 훈련이 부족하여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한다든가, 장기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담당자들은 이들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력 향상을 위해 쉼터 관리자는 꾸준히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다.

#### 사례 60

오래 하지 못해요, 찾아도 중단하고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4)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 ○정서적 안정

담당자가 쉼터에 입소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정서적 안정이다. 쉼터에 입소하면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조금 줄어 든다고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면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주거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기 때문에 쉼터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안감이 지속되는 경우 담당자가 학업중단 청소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 사례 61

일단 불안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해도 받아주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올 때는 조증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가라앉죠, 확연히 다르죠,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사실 그것들을 정신과 의사랑 해서 뭐 이렇게 심리검사를 받아보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긴 할텐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분명하거든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선생님들이 작업에 들어가기도 해요, 뭐는 이렇게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팅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의 불안정한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 비행 행동의 감소

쉼터에 들어온 상당수는 비행이나 일탈 등이 문제가 되었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쉼터에서 머무는 동안 입소 전에 보였던 비행행동을 보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간혹 쉼터에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비행행동들이 발견되어 새로이 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하다.

## 사례 62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 변화되었다는 내용 중 하나인데 아이들이 여기서는 사고치지 않아요, 여기서 지내면서 사고 친 적은 없어요, 대부분 밖에서 과거에 사고를 쳤던 것들이 발견되어 접수가 돼서 재판받고 이런 거죠, 여기서 새로 보호관찰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 일상생활 기술의 습득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로 관계자들은 일상생활 기술의 습득을 든다. 입소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으로 지속성의 부족을 언급하였듯이, 관계자들은 이들 청소년들이 입소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쉼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과 규칙을 지키는 등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쉼터에서는 꾸준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사회에 나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사례 63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기술이 많이 늘어간다는 것, 정말 기본적인 씻고, 먹고, 양치하고 어디 갈 때 어떤 옷차림이 필요하고, 은행, 공공기관 이용하기 등 사소하고 기본적인 걸 많이 익혀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자립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단기쉼터 관계자).

#### ○ 관계맺기의 변화

쉼터 생활을 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학습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2~3개월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처음과 끝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기껏해야 3개월간 거주하는 단기쉼터에서는 초반 1, 2개월보다 3개월을 모두 채워 퇴소하는 경우 더욱 변화된 모습을 지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기 퇴소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어른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경청하려고 하고 부드럽게 행동한다고 한다.

### 사례 64

보통 3개월 중 1, 2개월은 아니고 3개월 만기 퇴소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들어왔을 때에는 아이들이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만기 퇴소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

람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어른이나 성인이 뭔가 이야기하였을 때 그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쉽고 부드럽게 해요(단기쉼터 관계자),

### ○의지 향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학습을 지속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또한 미래를 위해 자립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이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대부분이 거주기간이 짧은 단기쉼터를 중·장기쉼터로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하여 기대치가 많이 낮기는 하다고 이야기한다.

#### 사례 65

거쳐 가는 곳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없고요 기대치를 많이 낮추었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조금 마음을 조금 다 잡아서 뭔가를 찾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런 거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단기쉼터 관계자),

#### 사례 66

여행프로젝트할 때, 하기 전에 우리 뭐까지 이야기 할까, 그러면 너가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보고서나 블로그 올리는 글이라든지 애들 보고 쓰라고 하거든요, 역할을 주면,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성장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죠(학습프로그램 담당자),

## 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어려움

### 1) 기관에서의 지원

#### ○맞춤 지원(사례관리)

쉼터 등 청소년 기관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인식하도록 조력하며 그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역할을 쉼터 관계자는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 말한다. 즉, 쉼터는 쉼터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표는 대개 ‘학업’과 ‘자립’으로 나뉘며, 기관은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사례 67

일단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사례관리자들이 개입하는데, “네가 학업을 유지할 것인가”, “자립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중 목표를 잡고요(단기쉼터 관계자),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때 목표 실행 계획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며, 필요시에는 컨설팅도 병행한다.

#### 사례 68

너무 편하고 외출 외박 다 억압되어 있다가 자유로우니깐 거기다 막 볼 사르는 거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일이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인제 선생님들이 작업에 들어가죠, ‘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팅도 하고요(중·장기쉘터 관계자),

#### ○ 학습 지원 및 진로 지도

기관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쉘터 거주 청소년들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복교 또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준비를 시킨다. 특히 학업, 진로 등을 원하는 경우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기도 한다.

#### 사례 69

학업 쪽에 욕구가 있는 친구는 검정고시를 많이 준비해요, 검정고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는 그거 관련하여 계속 지도해주고요, 진로 관련하여 뉴스차트 프로그램이나 취업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중·장기 쉘터 관계자),

기관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반을 구성하여 노력한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했듯이, 학력 취득과 자립을 위한 직업을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관은 이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준비반을 구성하기도 한다. 쉘터 자체에서 개별학습이나 외부강사 초빙,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준비반을 구성하기도 한다.

#### 사례 70

검정고시가 있죠, 저희에게 큰 과업이 검정고시인데요, 아이들이 일하는 거 그 와중에 중요한 게 학력 취득인데요, 아이들이 8월 초에 검정고시가 있는데, '검정고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동을 하죠,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 개별학습을 외부강사나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학습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정도 하고 있어요(중·장기쉘터 관계자),

때로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무료 지원을 해주는 학원들이 있어, 검정고시 학원에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무료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학원 출석률이 낮다고 말한다. 따라서 담당자가 직접 검정고시 과목을 미리 익혀 가르친다고 한다.

#### 사례 71

검정고시도 무료 지원해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기관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가겠습니까? 가서 다 자거나 중간에 땡땡이치거나 학교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전 과목 다 가르치고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 자립 준비 지원

쉼터에서 나가야 할 때 관리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원한다. 보통 단기쉼터는 최대 3개월, 중·장기쉼터는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0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무 살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퇴소를 시키고 있진 않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자립을 할 때가 되면 관리자는 이들에게 미리 자립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 함께 부동산 중개소에 간다든지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 사례 72

아이들이 나갈 때가 되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너 이제 시간이 되었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자” 같이 이야기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부동산도 같이 가고, 사주고, 이렇게 하고요, 기간은 나이별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살에 왔는데 2년이면 19살이잖아요, 19살에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있고요(중·장기쉼터 관계자),

단기쉽터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중·장기쉽터로 이전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문제는 20세 이전에 중·장기쉽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인데,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바로 퇴소시킬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무작정 자립을 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관 관계자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이 통장관리이며, 이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 등, 자칫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립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 사례 73

통장관리 해주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저축을 해주려고 하죠(중·장기쉽터 관계자).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외부기관과 연계하기도 한다. 쉽터는 아무래도 내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처럼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준비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상담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대부분은 정서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관은 개별상담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서적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전공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서적인 측면의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 사례 74

저희가 개별상담을 하죠, 사례관리사들이 개별상담으로 하여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일부러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좀 터트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단기쉼터 관계자).

#### 사례 75

제가 상담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상담을 목적으로 하여 애들에게 접근하지도 않지만, 약간의 그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의 장인 거 같고, 진짜 지적인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전공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계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그러나 관리자 1인이 맡는 업무량으로 인해 개별상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 개인 상담에 치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 사례 76

저희 직원이 6명이고요, 개별상담을 하는 분들은 5분이세요, 아이들이 정원이 15명이다 보니 아이들 정원이 짝 차게 되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당 3명이라고 하지만, 그게 인원이 한 분당 4~5명이 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깐 사실 개인 상담에 많이 치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단기쉼터 관계자).

#### ○정보 지원

기관 관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려고 한다. 때문에 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당부분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본인의 욕구만 있다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도 있고, 특히 학업중단 기간이 긴 청소년들은 관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은 과정 자체를 힘들어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사례 77

여기서는 그냥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인 거 같아요, 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대안학교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한편, 기관은 현재 입소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퇴소 후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도 관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쉼터 측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한다.

#### 사례 78

또, 끊어져 있지만, 지금은 오지 않지만, 때가 되면 전화를 하여 연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보를 주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그러나 퇴소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단기쉼터로 연계된 경우 추적은 더욱더 쉽지 않고, 중·장기쉼터 혹은 그룹홈으로 연계된 경우는 그나마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 가정으로 귀가한 경우도 연락이 종종 된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퇴소자들이 연락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연락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업무들로 인해 인테이크지(intake sheet)를 통한 매우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 각종 프로그램 지원

기관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화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할 때 요리, 청소 등을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청소하고, 빨래도 해보고, 세탁기 사용법을 익히도록 조력한다. 이런 지원을 통해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 사례 79

공공기관 이용하는 것도 종종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같이 일부러 나가서 데려가서 보여주고, 우편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도와주는 것과 같이 경험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변화시켜 가는 것 같아요(단기쉼터 관계자).

이외에도 쉼터는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있다. 입소 시 본인이 가져온 옷 이외에도 쉼터에 있는 옷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에 구비되어 있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다. 현재 쉼터는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사례 80

다 지원을 해줘요. 본인이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아이들 옷부터 신발까지 다 지원해줘요. 근데, 아이들한테 개별적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구비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슬리퍼에 티셔츠 입고 온 경우 운동화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단기쉼터 관계자).

## 2) 기관 운영의 어려움

### ○ 발굴의 어려움

직접 찾아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연계에 의해 오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청

소년들을 이끌만한 자체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이에 참여할 청소년들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도 어렵다는 것을 면담 결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홍보 및 주변의 적극적 개입 부족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례 81

아웃리치같은 것을 해도 조금 많이 어렵죠, 가출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가출팸 사이트도 있고, 집단 형성하여 같이 살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인데, 많이 어려워요, 접하기에는 연락하기에도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아웃리치만으론 접근이 어렵죠(단기쉼터 관계자),

또한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발굴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2009년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수가 7만2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된다.

#### 사례 82

실제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지나면 아이들은 거리에 있으니까요, 지금 엄청날 걸요, 그 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중·장기쉼터 관계자),

#### ○연계의 어려움

관리자들은 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타 기관으로 연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언젠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자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연계하려는 기관에서도 대상자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단기쉼터에서 중·장기쉼터로 연계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한다.

### 사례 83

저희가 케이스를 연계하려고 해도 쉽게 잘 안 받아주고요, 그쪽에서도 생활하는 거 봐서 계속 지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조금 어려워요, 중·장기쉼터 보내는 게 많지 않아요, 중·장기쉼터 자체가 많지 않고요(단기쉼터 관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서로 원하는 것이 많지만, 여건이 어렵고 이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더욱 그렇다고 본다. 때문에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잘 만나진 않고 단순히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만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 사례 84

기본적으로 이쪽 아이들 청소년 쪽은 연대가 잘 안 되요, 그러니까 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서로 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들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게 연대를 해야 하나 준비할 사람은 별로 없고, 각자 특성이 강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만나는 것 같고 뜻 있는 사람은 만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아요, 청소년은 외져 있어요, 특히 수련관 같은 쪽은 말고, 굉장히 상당히 외져 있죠(중·장기쉼터 관계자).

#### ○ 홍보의 어려움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안학교 혹은 관련 기관, 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0%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찾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쉼터 관리자들도 아직까지 서울시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목록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이나 대안교육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사례 85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면, 아이들도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이 많을 텐데 몰랐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학습 프로그램 운영자).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 입학하거나 제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담당교사 혹은 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교 이외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사례 86

홍보자체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부려준다던가, 연예인이 떴들어 홍보하지 않는 한 속속들이 아이들에게 홍보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단기쉘터 관계자).

관리자들은 서울시가 현재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도 않고, 기관도 지역 내 아는 사람들끼리만 홍보를 하고 있어 스스로 홍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 사례 87

그거는 저희 같은 실무자들도 많이 홍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지역내 아는 사람들끼리 홍보하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 ○ 정보 습득 및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기관의 관계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

라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실망한다고 한다.

#### 사례 88

여기서 해줘야 하는 것이 정보를 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내가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정보라는 게, 때로는 나 같이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또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는 많은 양이 필요한데, 정보들이 산발적이어서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사례 89

그 운영자가 알고 있어야 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하고 그것들을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산발적인 이런 서비스에 대해 이런 데는 이런 서비스를 주고 저런 데는 저런 서비스를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하니 힘이 좀 들어요(학습프로그램 운영자),

이와 같은 꾀직한 어려움 외에도 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인력 특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당자 부임 이후 똑같은 자료들을 요구할 때 관리자 1인이 맡아야 할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 제4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 및 개선사항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사항

#### 1) 정보 및 홍보 제공

만나 본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중단 이전부터 1388 전화번호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례는 매우 적었다. 대부분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업중단 이후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부터 자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길 원한다.

#### 사례 90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 원가정 말고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충분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 이런 거를 알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이정희).

#### 사례 91

쉼터가 처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모르고요, 그런 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처음에 가출할 거라고 절대 생각 못했거든요, 가출하면 뭐하냐 하고 맨 날 생각했는데, 쉼터에서 생활하네요(우준우).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혼자서 방황하는 시간이 줄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학업중단 후의 학습 및 진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홍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 사례 92

탈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나, 관련된 기관이나, 뭐 이런 거를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든 거 같아요(이영희).

## 2) 상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얘기하고 때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를 옆에서 거들어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 사례 93

제가 하는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는 제가 하는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떻게 계산할 방법,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바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면 되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나랑 그 사람이랑 말하기도 싫거든요, 그게 일반학교였고, 그거 때문에 나온 애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랬고요(김민기).

특히, 학교를 막 그만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기관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 사례 94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굳이 아니어도 뭔가 상담센터나, 이런 곳에서 애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이 있어야 아이들이 대안학교 특성에 맞게 잘 보내줄 수 있

거든요, 간혹 가다 어떤 학생은 우리학교 그 학습과정이 자기랑 안 맞아서 나가  
는 경우도 많거든요, 바로 여길 찾다 보니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기관이 필요  
한 것 같아요(남미애),

### 3) 직업 및 진로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진로이다.  
학교를 다닐 때는 당연하게 대학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일을 새롭게 해  
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이 진로 또는 직업을 혼자 알아보고 탐색하기에는 버거  
워 진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등이 많기를 바란다. 다음은 현재 인턴십을 하고 있는 이  
영희의 말이다.

#### 사례 95

인턴십이나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말 하니깐 되  
게 웃긴 거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 영화에서 막 '뭐하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말이 너무 식상한 거 같아서요,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이영  
희),

또한 학업중단 남자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이상의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사례 96

자퇴하고 나오면 쪽 그걸로 가지고 자기 평생직장인, 남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하니깐 기술 배우고 싶으면요, 어떠한 어떠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  
서 내게 이 길을 가면 좋겠다, 방향 같은걸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우준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아르바이트로는 성인이 되어서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다.

#### 4) 교육 공간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학교 밖에서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학교와 같은 교과 교육에 대한 요구보다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한 인간에게 필요한 교육, 즉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Homo-eracutus)이므로 학습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 역시 크다.

##### 사례 97

저는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안학교 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만든 뭐 말 그대로 검정고시 특강을 준비하는 것, 인문학 수업을 강의하는 것들 이라든지요, 대안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교육인 것 같아요(남미애).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 대안학교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일 수도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례 98

시설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시켜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우준우).

## 5)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요구는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다. 검정고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많은데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관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많다.

### 사례 99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시설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시켜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나은 애들이랑 집에 있는 자퇴생이 훨씬 많으니까요(우준우),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혼자 준비하기 위해 검정고시 학원에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가출을 하였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원비는 적잖은 부담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무료이거나 검정고시 수강비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6) 기타 요구 사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요구는 위에 제시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숙식 제공이다. 학업을 중단한 가출 청소년은 잘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업중단 후 노숙 등을 경험해 본 이정희의 말이다.

### 사례 100

그리고 무료 급식 했을 때 솔직히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좀 노숙자 아저씨들 같고요, 막 그런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가니깐 애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존심인지 아무튼 뭐 창피해서 그런 거죠, 좀 분위기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도  
와주고 싶다면, 좀 바꿔서 애들을 위한 그런 걸 만드는 거요(이영희).

둘째, 여행이나 문화적 지원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다닐 때보다 시  
간이 더 많으나 이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생활을 하거나 교육적 여행을 해 볼  
기회가 적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티켓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  
활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

#### 사례 101

여행을 많이 가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지원이 잘 안되니까 약  
간, 검소하게 가요, 전 문화적 지원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고연티켓 이런 거요,  
되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  
니까요(김민기).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비슷한  
청소년끼리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쉴 수도 있으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사례 102

제 생각인데요, 놀이터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이터  
아니고요, 그 건물 같은 건데, 그냥, 편하게 와서 모이고,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이영희).

넷째, 보호자 등의 절차 개선이다. 가출을 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들은 기관 종사자들이 보호자 등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이 많다.

### 사례 103

저는 살기 바빴기 때문에, 막상 학교, 솔직히 입학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 문제가 있는 애들은 학교를 다시 가고 싶지만 학교 자퇴했어도 입학하고 싶지만 입학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하는 것을 꺼려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아이들을 좀 저기해주는 시스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이정희).

이외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수시 전형료 등의 지원이 있길 바란다.

## 2. 담당자 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선사항

### 1) 홍보 강화

담당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홍보로는 청소년들이 1388이나 청소년센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방송이나 유명인들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모사업 등이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요구에서도 파악한 바 있다.

### 사례 104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학습프로그램 운영자).

## 2) 청소년쉼터의 확충

담당자들을 한결같이 청소년쉼터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있는 쉼터의 수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기출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쉼터를 나온 청소년들을 계속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쉼터의 절대 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사례 105

일단 기본적으로 쉼터가 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일시보호소,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인데요, 일시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걸러 단기쉼터로 가요, 단기쉼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중·장기쉼터로 가는데, 정말 수가 적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이 계속 쉼터를 전전하는 거거든요, 쉼터 떠돌이라고 저희는 부르구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3)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센터는 없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센터는 타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적어도 현재의 대안학교나 쉼터와는 다른 성격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전문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 활동 지원과 향후 자립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례 106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센터만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센터가 생겨서 이런 기관들과 연계하여 아이들 프로그램 하거나 정말 학업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기관'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대안학교 이런 느낌 아니고요(단기쉼터 관계자).

#### 4) 학업중단 조치 시점 개선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조치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Wee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 단위학교에서 Wee클래스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발생하므로, 담당자들이 초기에 치밀하게 개입해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 그 학생에 대한 보살핌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도 충분한 상담과 보살핌,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을 위한 정보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례 107

거기에서 가장 처음에 문제점을 발견한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그게 학교에서 떠나든 안 떠나든 문제는 굉장히 명쾌해지게 잘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게 떠나도 안 떠나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데, 학교와 요 사이의 이 경계선 급 아이에 대한 케어가 거의 없고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짐도 당연히 다 보이고 충분히요, 떠난다고 가정사실화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보를 많이 주던지 그냥 이렇게 되야죠(학습프로그램 운영자).

## 5)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간소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 1월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 시행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신분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학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던 것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신분확인에 한계가 있음을 보완하고자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도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증은 부모 동의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통해 발급되는데,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미성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가출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부모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이는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사례 108

신분증 관련해서 발급받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절차가 청소년증 발급하는 이런 것들 모두 부모 동의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도망쳤는데, 이로 인해 또 이렇게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요(단기쉘터 관계자),

또한 청소년증 발급 마지막 절차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모와 동행할 수 없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 담당자들이 동행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증 발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사례 109

직접 못 떼게 되어 있더라구요, 보호자 확인이 되고, 보호자와 같이 해야 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이 나온 미성년자는 괜찮은데, 학생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마져 없으니 청소년증 하나 발급받는데 어려워요, 학업 중단자는 학생증이 없으니깐,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청소년증이 있어야 해요(단기쉼터 관계자).

## 6)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관들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여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례 110

각종 기관들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정이고 그 아이들이 전전하다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거의 보면 그 전에는 와서 좀 프로그램을 좀 하면 '그거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단기쉼터 관계자).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들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서울시, 각종 단체, 학원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구성원들에 대한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례 111

만약에 프로그램 하나를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눈높이를 맞추,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니깐 여성가족부든지 서울시든지 각종 학원들과 연계하여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중·장기쉼터 관계자).

## 7) 기타 개선사항

위에 제시한 개선사항 외에 담당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첫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소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례 112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학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비용들 어디까지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요(단기상담 관계자),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례 113

예산 지원이 많이 되면 좋죠, '학업중단' 에게만 이렇게 써라' 하면 좋겠죠, 따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끼이는 것들 말고요(중·장기상담 관계자),

### 사례 114

지자체 예산들을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학습프로그램 운영자),

셋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나 관련 기관들의 공간과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례 112

예산이 시설이나 예산 쪽을 보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

해서요,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막 다 세고 그랬어요, 여기 SH 공사랑 인제 해가지고 서울시랑 해서 좀 싸게 임대료를 받은 거긴 한데, 시설은 뭐 좀 노후 되서 그런 면이 있어요(중·장기주택 관계자),

이외에도 담당자들은 학업중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해서 배움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보다는 학교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 사례 113

그렇게 그리고, 학교를 떠난 것이 배움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학업을 중단,,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게 되게 싫어하는 게, 학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중단한 거잖아요(학습프로그램 운영자),

이렇게 학업중단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이들에 대한 지원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제5절 시사점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사회에서 학업중단자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눅 들고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 및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라는 점이다. 공부를 싫어했던 학업중단 청소년도 학업중단 이후에는 학습에 관심을 가지며, 학력 취득에는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취업 지원에 앞서 학습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 공에 신경을 쓸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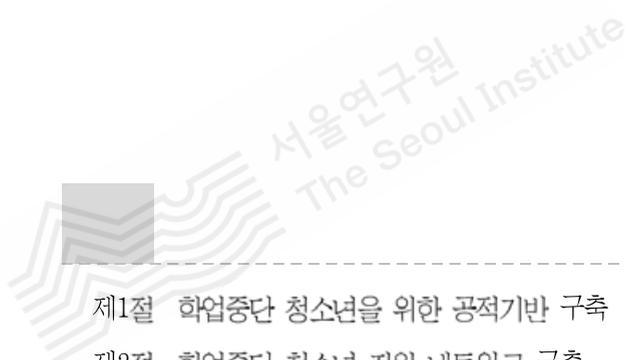
셋째, 담당자들이 옆에서 느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는 앞서 기술했던 학업중단자 스스로가 중단 이후의 변화된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부족했던 생활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고, 친구와의 관계 맺기도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숨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 및 관련자 모두 홍보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기까지의 경로는 정보가 있는 경우는 짧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차이를 볼 때 학업중단 이전, 중단 시점, 중단 이후 등 세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숙식 등의 제 공이 우선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때론 이들에게 맞는 예외적인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야만 청소년증 발급 등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제5장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



-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적기반 구축
-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제3절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제4절 일자리 및 취업 등 자립지원
- 제5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 제 5 장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

###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적기반 구축

####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서울시 초·중·고에서 매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의 수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인 시점에 이르렀다. 면담 조사로 볼 때,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시 소재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또는 전국에서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이 유입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도 전국적으로 그 수가 적어 이용에 한계가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이 숙식을 해결하며 자신의 진로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에 있는 단기쉼터는 5곳, 중·장기쉼터는 4곳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시설이기보다 청소년 시설로서 학업중단자 외에 가출 청소년 등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에는 무리이다. 청소년쉼터 외에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의 지원

을 받아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대안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있으나, 이곳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인 징검다리 사업 지원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미래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공적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즉 (가칭)‘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교육을 해왔고 서울시에 소개하는 18개 대안학교와 네트워크학교를 형성하고, 이들 네트워크학교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인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습을 그만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쉽다. 면담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 중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정보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학습프로그램이 많지 않을뿐더러 이들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벗어난 학업중단 청소년은 시민이므로, 시민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9조(청소년 복지의 향상)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

해 사회와 국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수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전담 부서 마련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현재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징검다리 사업과 서울시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부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청소년담당관의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보다 전반적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에 해당하여 지원이 수반된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담 조직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은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에 마련하거나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에 학업중단 청소년팀을 마련할 수 있다. 전자는 다른 청소년 사업과 연계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4.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매년 1만 여명에 육박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전후 실태와 이들의 욕구 조사

에 기초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 연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례별로 다른 양상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단기 학습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장기 학습프로그램과 전일제 대안학교의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립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직업훈련 계획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1. 서울시교육청과 네트워크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발굴에서부터 학습 및 정서 지원, 일상적 지원까지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발굴이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있긴 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순간부터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담당자의 면담에서 지적된 것처럼, 학업 중단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

현재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주로 교육과 학기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와 보건사회부의 몫이다. 정부 부처 간 연계 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끊임 없는 연계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 외에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굴부터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Wee 센터를 통해 지도하되,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면 바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생기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들에게 이후의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업중단 청소년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일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적절한 학습과 돌봄을 제공하여 발굴부터 학습, 진로 및 취업 등까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 2.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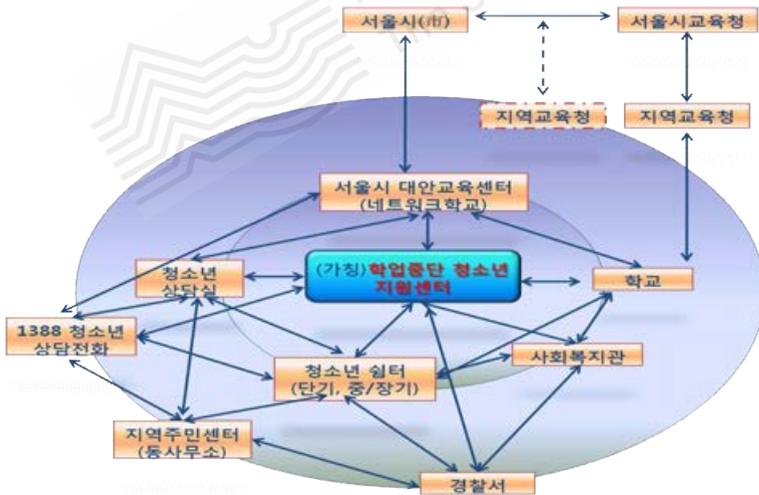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많지 않다.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Wee 센터는 학교 안의 위기 학생들(부적응, 일탈, 왕따, 학교 폭력 등)을 대상으로 이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도 위기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학습지원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못하다. 두드림 존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중단은 최종적인 결과로서 그 원인과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만

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 역시 학습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숙식 문제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전 생활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때 네트워크는 소생활권 단위로 이루어져야 학업중단 청소년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학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및 청소년복지관,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징검다리 사업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학교, 지역의 대안학교, 대안학습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이 학업중단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 학습, 주거 지원, 진로지원 등을 연계해 나간다.

다음의 그림은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는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에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5-1〉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 제3절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 1. 대안적 학습공간 마련

학교를 나오는 순간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이 지속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후 대안학교를 찾아 학습을 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있어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점도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다른 대안적인 학습에서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과 흥미를 찾고,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면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학업중단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게는 성인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남아 있으며, 그 시간 동안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은 제한적이다. 비인가형 대안학교나 시민단체에서의 프로그램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쉼터 등 기관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기관의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가 있으나, 집에서 생활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습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매우 어렵다. 이들은 아직 성인으로의 준비과정인 청소년이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징검다리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모두 흡수할 수 없으므로, 징검다리 사업의 적극 확대와 더불어 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2.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지 및 예산 등이 부족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합하며, 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미래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습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징검다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가 적으며 프로그램 개발이 체계적이진 않다. 늘어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길잡이 교사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3.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상당 시간 동안 방황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방향을 최소화하고, 중단 시점부터 성인기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최적이라 보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차후 성인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제공도 포함된다. 그 일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제4절 일자리 및 취업 등 자립지원

집을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숙식의 해결인데, 이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취업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면담 사례에서 본 것처럼 낮은 시급과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노숙 등의 상황에 놓인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의 각종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지원코너’를 마련할 수 있다(이경상·박창남, 2006 : 284). 이 코너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에 두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부당 계약 및 임금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 시급 지급 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해 나가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의 직업학교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직업학교도 학업중단청소년이 직업 기술을 연마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제한된 과의 훈련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의 개설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제5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면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요구가 컸다. 학업을 중단하고 난 뒤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버겁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상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학업중단 시기의 심리적 불안, 학업중단 후 삶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이들에 대한 상담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ee 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쉼터에서는 기관 담당자들이 사례 관리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원을 통한 상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일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트를 마련하여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폭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6월 23일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 금명자(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 운영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광운(200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활동방향”.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Vol. 29. pp.61-76.
- 김선아(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기(2010). “서울시 등교중단 실태 및 대안교육 발전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  
황 및 지원방안 모색」. 서울시 교육·복지상생정책심포지엄 자료집(2010.  
10.25).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김의철(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행동의 특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  
으로”. 「교육심리연구」13(1). pp.99-142
- 김현국·강명숙·권기승·김성기 외 2인(2011). 「서울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서울시교육청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9(3)
- 류방란(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  
육개발원

- 박영신·김의철·김영희(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사회문제』 13(1). pp.1-41. 한국 심리학회
-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정미경. 보건복지가족부
- 서우석 외(2001). 경기도 실업계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서울심사분류원(1997).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18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서울특별시(2010). 「제 50회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1). 「2011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2008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2009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2010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유성경·이소래(2008).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미원(2006).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 실업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류방란(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박창남(2006).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연구」 17(2). pp.265-28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pp.69-89
- 이병환(2007). “대안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방안”. 「중등교육연구」 pp.69-89.
- 이창호(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창호·지승희·장미경(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 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혜영(2001). 「학업중단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전경숙(2005).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영승 외(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 조혜정(198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의미 :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지승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성미(2010).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과정 사례분석”. 「교원교육」26(2). pp.147-165. 한국교원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진성미·이혜숙·정연순(2009). 「징검다리 학습과정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최정자(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관련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 한국고용정보원(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 최종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2006-2010).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2010).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4회 정책토론회.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순천향대학교

## 2. 국외문헌

- Bryk. A. S. & Thum. Y. M.(1989). The effects of high school organization on dropping out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3). 353-383
- Good. C. V.(1973). Dictionary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 McGraw-Hill. 198
- Morrow. G. P.(1986). Standing Practice in the Analysis of Dropouts. Teachers Collage Record. 87. 342-355
- Rumberger. R. W.(2001).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and what can be done. the Civil Rights Project. Dropout in America : How serve is the problem. what do we know about intervention and prevention?

### 3.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13일자. “권영길 의원, 학업중단 고교생 전문계고가 특목  
고에 비해 4.3배”

### 4. 관련 사이트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두드림존(<http://www.dodream.or.kr/>)

서울시대안교육센터(<http://www.seoulallnet.org/>)

해밀센터(<http://www.hemilcenter.or.kr/>)

Baltimore YO! Center(<http://www.yobaltimore.org>)

Job Corps(<http://www.jobcorps.gov/home.aspx>)

Wee-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http://www.wee.go.kr/home/main.php>)

# 영문 요약 (Abstract)



# A study on the Support plans for the Educative Activities of out-of school Youth

Hyesook Lee · Eunjung Seo

In 2010, out-of school youth of Seoul Metro City(blew SMC) is 13,381 persons, and it comes up to 0.95% at the rate of all students in Seoul. Over ten thousands out-of school youth get out the school every year. But it is not prepare proper supports of the learning and the job for them. Because there are no making the institutional devices which out-of school youth is able to grow up sound adult, out-of school youth is highly probable to the deviation and commitment an irregularity. And this study will build to the support devices for out-of school youth to help to live citizen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out-of school youth's life and demands. For these, this study had interviews with out-of school youth 9 persons and manager 3 persons of the youth institutions. Results of interview follow blew:

First, after out-of school, out-of school youth undergoes difficulty in the residence. In case, they sleep outdoors. Also they are difficulty in searching of a job. And they are hard up for money.

Second, out-of school youth has an interest on the learning after out-of school. So they try to prepare an official examination(Geomseonggosi) or attend a non-approval alternative school. Out-of school youth finds out own's change and gains confidence in oneself throw of the learning.

Third, out-of school youth demands the public informations about the youth shelter ('chongsoneon shimter'). And they need counseling. Above all, they demand the supports of job and career counseling. In addition to, they want to offer to the alternative learning space and help to preparing for the

official examination.

Grounding in above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support devices of educative activities for out-of school youth.

1. Establishment the public foundations for out-of school youth.

Establishment tentatively named “supporting center for out-of school youth”, enactment of rule supporting out-of school youth, building the long-term plans for out-of school youth are required.

2. Construction of the supporting network for out-of school youth.

It is linked with seeking for out-of school youth, learning, residence and career consulting throw the building the network between SMC-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NE) and among the institutions concerning youth.

3. Educational support plans for out-of school youth.

SMC should prepare the alternative learning place and develop the learning programs. Also it should supply the career and job programs for out-of school youth.

4. Besides, the independence support including taking a job, counseling support is required.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Scope
3. Methods

## *Chapter 2 Review on Reference and Law on Out-of School Youth*

1. Theory on Out-of School Youth
2. Law on Youth

## *Chapter 3 Current Status and Policy of Out-of School Youth*

1. Current Status of Out-of School Youth
2. Policy of Out-of School Youth
3. Programs of Out-of School Youth in Seoul
4. Support Programs of Out-of School Youth in Foreign Case
5. Policy Suggestions

## *Chapter 4 Qualitative Analysis on out-of School Youth's Life and Demands*

1. Outline on Interview
2. Out-of School Youth's Life
3. View Point of Manager in the Youth Institution
4. Demands for Out-of School Youth
5. Policy Suggestions

## *Chapter 5 Support Devices for Educative Activities*

1. Establishment the Public Foundations
2. Construction of the Supporting Network
3. Educational Support Plans

4. Independence Support
5. Counseling Support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10-PR-68

##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

발행인 김 상 범

발행일 2011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

값 6,000원 ISBN 978-89-8052-841-7 9354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